2010.11.17 No.85
gonggam.korea.kr

Weekly 공감



G20 정상회의 '서울선언'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구축 p13~41

조선왕실의궤, 고향 땅 돌아온다 p8~9

4대강살리기 사업이 '대운하'가 아닌 10가지 이유 p42~45


G20 SEOUL SUMMIT 2010
경제위기 극복의 전환점
서울 G20 정상회의
Korea 2010-2012
VISIT KOREA YEAR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당신의 미소로
한국을 선물하세요"
SMILE KOREA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김연아
VKC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VISIT KOREA COMMITTEE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위한 협력 틀 마련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세계의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의가 지금까지 개최된 G20 정상회의들보다 더 중요하고 세계경제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은 일단 공황의 위기를 넘긴 세계경제가 안정과 발전을 지속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어려운 이슈의 등장은 참가국들의 상이한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부담으로 작용했음에도 한국은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서울선언'은 G20 정상회의가 다루어온 기존 의제들에 대한 국가들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계경제의 안정과 균형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무역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개 참가국 모두가 경상수지 흑자 폭이나 적자 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환율·재정에 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 작성에 합의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비록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도, 구속력도 갖지 않지만 환율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들의 공통의 기대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점진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력 틀을 만들어가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다. 환율 문제는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다자 협력의 틀 안으로 담아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를 프랑스가 주재할 차기 G20 정상회의에서 확대 논의하기로 한 것도 인정받아야 할 성과다. 개발과 금융안전망 의제를 더 논의키로 한 것은 경제개발과 금융위기 극복의 살아 있는 경험을 가진 한국이 개발도상국들의 절실한 필요를 전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선진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한국에 많은 의미를 남겼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지배적인 규범 제정자였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단순히 규범 수용자에 머문 것은 아니다.

한국은 의장국이자 세계경제의 책임 있는 참가자로서 규범 기획자(Rule-Entrepreneur)로서의 입지를 굳혔다고 할 수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의 합의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이해에 경도되지 않고 정상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국가들의 이해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 규범 기획력(Rule Entrepreneurship)을 축적하고 소수 국가로 구성된 글로벌 협의체에서 존재가치를 확립했다.

이제 G20 정상회의를 통해 내적으로 확충된 국가 역량과 외적으로 제고된 국가 이미지를 활용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다. G



강선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14

Contents

Weekly
2010.11.17
No.85(통권 186호)



표지 이야기

11월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각국 정상, 국제기구 대표들이 주회의장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아DB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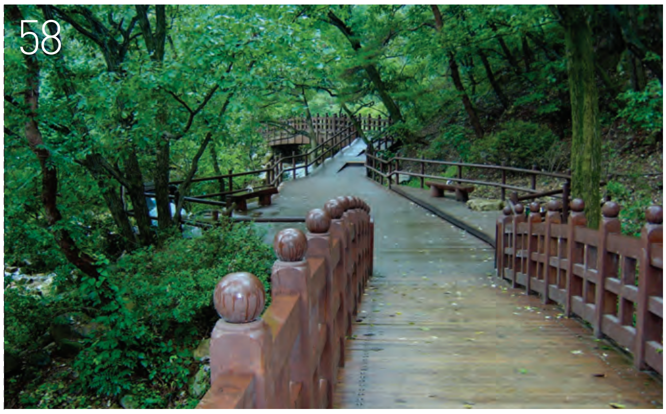
54



기 획 특 집

서울 G20 정상회의 성료
세계로 떨친 코리아 리더십

서울 G20 정상회의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의장국인 대한민국 주도로 G20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서울 액션플랜'에 합의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개도국이 함께 번영과 발전을 누리기 위한
역사적 성과물을 이뤄낸 것입니다.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감동이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거둔 자신감과 성숙함이라면
선진 일류국가의 꿈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11.17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84호(11월 10일자) 기획특집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대박 기원!"

"서울 G20 정상회의처럼 외국인이 대거 찾는 행사에서 역시 공항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편리함이 어느 때보다 담보돼야 하죠. 그런 면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준비 상황은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인정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기사에서도 알 수 있네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아름다운 한국의 이미지가 공항 때문에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별 사고 없이 각국 정상과 귀빈들이 다녀갔으면 합니다."_김선용

"불교계에서도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는 법회를 가졌다니 흐뭇합니다. G20 정상회의는 개최하기도 쉽지 않으며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열려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종교의 다름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마음과 뜻을 모읍시다."_우도형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로 경제효과 기대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호텔, 유통, 식품업계 등 기업들이 마케팅 열기까지 뿜어내니 우리나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처럼 경제적 효과까지 노릴 수 있으니 이를 잘만 활용하면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_우정렬

84호 '스포츠 / 아시아의 올림픽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개막'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올림픽을 비롯한 큰 국제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도 국민의 시선과 관심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정부의 지원과 보조가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인기는 없지만 국제대회에서는 선전한 종목과 선수들의 노력이 또 다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줍시다."_woodh0619

84호 '현장 공감 / 국내 최초 10대 미혼모 위한 나래중고등학교' 기사를 보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10대 미혼모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그나마 이런 대안학교가 있어 다행입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경제적 능력도 없으면서 임신한 것은 온당한 처사는 아니지만 미혼모도 사회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과 지원, 대안교육기관 증설 등을 실행해나갔으면 합니다."_woojr2001


'경제 월드컵'서 국내 기업 마케팅 열전


"아이도 키우고 내 꿈도 이룰 거예요"

알립니다

생활 속 재활용 아이디어 있으시죠?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량(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등 '3R'를 주제로 한 '생활 속 3R 공감 정책' 대국민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 내용 |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거나 제품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안, 폐기물의 수거·재활용 활성화, 자원순환정책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

접수 기간 | 11월 30일까지

응모 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는 응모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yourhongju@korea.kr)으로 제출

수상자 발표 | 12월 3일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예정

시상 내용 | 금상 1명(1백만원), 은상 2명(각 50만원), 동상 5명(각 30만원) 등 입상자 8명에게 총 3백50만원의 상금 및 상장 수여 예정

환경부 ☎ 02-2110-6913 www.me.go.kr

우리 농산물에 이름을 지어주세요

올해 새롭게 개발된 식량작물인 벼, 밀, 콩 새품종의 이름을 공모한다. 새로 개발된 새품종에 창의적이고 부르기 쉬운 이름을 붙여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에 좀 더 친숙해지고 품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다.

접수 기간 | 11월 30일까지

응모 방법 | 벼, 밀, 콩 중 한 품종의 이름만 짓거나 최대 3개 품종의 이름을 2~4글자로 지어 농촌진흥청(rda.go.kr), 국립식량과학원(nics.go.kr), 코레일닷컴(korail.com), 공감코리아(korea.kr), 네이버 이벤트(event.naver.com) 등 인터넷 홈페이지나 트위터(@cropkorea)에 응모

수상자 발표 | 12월 10일 이후 국립식량과학원 홈페이지 게재 예정

시상 내용 | 최우수상 3점, 우수상 6점 등 모두 60점을 뽑아 우리나라 최고 품질 쌀인 탑라이스 증정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031-290-6682 www.nics.go.kr

공감 ♥ 퍼즐

1	2			3	
	4	5			
		6			
	7				
			8		
9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11월 24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한곳에 모여 뭉침. 한곳에 모아 뭉침. 모음, 한데 모음. "국력을 OO하다."
4. 한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 "대한민국, 세계 OO국가로 향하다."
6. 특정 분야의 전문가, 장인, 대가라는 뜻의 외래어. OOOO고등학교.
7. 오릿과의 물새. 가을에 우리나라에 날아와 겨울을 보내죠. 천연기념물 제201-1호.
9. 등불을 가까이할 만하다는 뜻으로, 서늘한 가을밤은 등불을 가까이하여 글 읽기에 좋음을 이르는 말.

세 로

2. 한곳을 중심으로 하여 모임. 또는 그렇게 모음. "세계의 이목이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린 대한민국으로 OO됐다."
3. 일정한 사회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전수조사. 인구조사.
5. "심봤다!" 하고 외치는 사람.
7. 옛날에 쓴 글씨나 그림.
8.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친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의 어근. "그는 나와 OO한 사이다."

〈Weekly 공감〉 83호(11월 3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2 봉은사 **5** 다정다감 **7** 둘리 **8** 칠레 **9** 길목
세로 1 상봉 **3** 사다리 **4** 곶감 **6** 다보탑 **7** 둘레길

〈Weekly 공감〉 83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미영 · 경북 영주시 영주2동
김영신 ·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서용미 · 인천 남동구 만수2동
임용선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황지연 · 서울 구로구 고척2동

21세기 한국,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동아DB

1백 년 전 이 땅에 '대한제국'이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목표는 '자주독립'과 '근대국가'였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란 명칭을 공표한 고종은 근대국가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헌법을 정비하고 국기(國旗)와 국가(國歌)를 제정했습니다. 또한 공장, 학교, 병원, 철도 등 근대화 기반 시설도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가임을 알리기 위해 파리 만국박람회에도 참가했지요. 그러나 대한제국이 염원하던 근대화와 독립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1910년 우리는 나라를 잃었고 독립의 꿈도 좌초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으로 암울했던 지난 1백 년의 전반부 50년과 달리 후반부 50년은 밝았습니다. 1960년대 들어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국민소득은 당시 1백 달러 미만에서 현재 2만 달러를 육박하는 수준으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분단 이후 끊임없이 희망해온 통일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첫 번째 꿈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일 겁니다. 그동안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많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일본과 아일랜드 정도로 드뭅니다. 그만큼 선진국이 되려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진국 문턱에 올랐다가 정치개혁과 세계화를 거부해 후진국으로 밀려난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의 선진화 방안을 찾는다면 '개혁친화적인 정치', '세계화', '확고한 국가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인구 감소 자체로 경제성장률이 2퍼센트 떨어집니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선진국에 진입해야 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선진국 진입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꿈은 분단 이후 끊임없이 희망해온 통일입니다. 통일은 창조적이고 새로운 통합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통일의 길은 남북의 경제통합을 유도해 북한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세계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이때 동북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곳으로 자리하려면 남북통일이라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평화와 번영의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선진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선진국의 꿈을 나눠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22세기에 살아갈 후손들이 1백 년 전의 우리를 보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신념을 갖고 역사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정리 · 김지영 기자**

이번 호부터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대(對)국민 강연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의 세부 내용을 '공감코리아(www.korea.kr)'에서 발췌 요약해 연재합니다.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이정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1.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이 개막하면서 다시 한 번 스포츠에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지만 평소에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적었음을 반성해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인기 종목에만 쏠렸지 비인기 종목에는 소홀했던 것도 송구하네요. 그러나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비인기 종목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힘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2. 서울 G20 정상회의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이 향상되고 국력이 커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중심에 서서 논의를 이끌어가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느낍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지구촌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대가 됐으면 합니다.

3.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지속되도록 잘 알려지지 않은 겨울 스포츠 종목을 소개해주세요.

홍경석 대전 서구 둔산동

1. 북한산 둘레길 기사와 사진을 잘 봤습니다. 현대인은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요. 저도 주말엔 등산을 자주 가는데 기회가 닿는다면 북한산 둘레길을 꼭 다녀오고 싶네요.

2.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어떤 나라 누가 누가 오나'를 잘 알려줘서 유익했습니다. 우리가 정상회의 주최국이면서도 국민이 정작 누가 오는지를 모른다는 건 아이러니일 테니까요.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3. 설경이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화보로 보여주세요.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1월 24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저탄소 녹색관광 - 생태관광지 10선

Korea Be Inspired

이렇게 좋은데를 두고 넌 어디있니?



때 묻지 않은 자연을 담았습니다.

오솔길을 달리는 자전거에 파란 하늘을 싣고, 풀 섶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에 시간을 담그고...

때로는 예쁜 나비와 함께 걸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저탄소 녹색관광이 지구 온난화를 예방합니다.

2010 G20 SEOUL SUMMIT G20준비위원회 국민과 함께 세계로, 세계와 함께 미래로 2010 서울G20정상회의 (11.11~12)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가져간 〈조선왕실의궤〉가 돌아온다. 왼쪽부터 〈보인소의궤〉에 실린 어보 그림, 〈보인소의궤〉, 〈선원보략수정의궤〉.

조선왕실의궤 돌아온다

해외 반출 도서 1천2백5책 고향 땅으로

〈조선왕실의궤〉 〈대전회통〉 등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우리 도서 1천2백5책이 돌아온다. 한일 양국 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문화재 반환에 합의했다. 경술국치 1백 년인 올해 국보급 유물인 〈조선왕실의궤〉 등 해외 반출 문화재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더 의미가 깊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됐던 〈조선왕실의궤〉 등 우리 문화재가 돌아온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은 11월 8일 전화통화를 갖고 도서 관련 협정문안과 도서 반환 범위에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양국 장관은 협정문안에서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 1천2백5책(冊)을 인도(반환)하고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도서를 인도하며 ▲양국 간 문화교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11월 14일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문화재 반환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마에하라 일본 외상은 11월 9일 〈조선왕실의궤〉 등 문화재를 한국에 인도하는 협정을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이들 문화재는 빠르면 올해 안에 돌아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반환에 합의한 도서는 조선시대 국가의 주요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조선왕실의궤〉 1백67책 전부,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 1책, 상고 때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의 문물제도를 총망라한 〈증보문헌비고〉 99책, 규장각에서 반출된 도서 9백38책이다. 이들 도서는 현재 일본왕실의 사무를 관장하는 궁내청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이번 도서 반환은 1965년 한일 문화재 반환협약 당시 궁내청 소장분 8백52점을 포함해 모두 1천4백32점을 반환받은 데 이어 두 번째 규모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우리 입장에선 '반환' 당연"

특히 〈조선왕실의궤〉는 조선 왕실의 즉위식, 관혼상제 등의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2007년 6월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귀중한 문화재다.

하지만 당초 관심을 모았던 조선 왕조의 제왕학 강의인 〈경연도서〉와 대한제국 황실도서관이 소장했던 〈제실도서〉는 반환 목록에서 제외됐다. 조선총독부를 통한 반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협정문안을 놓고 한국 측은 소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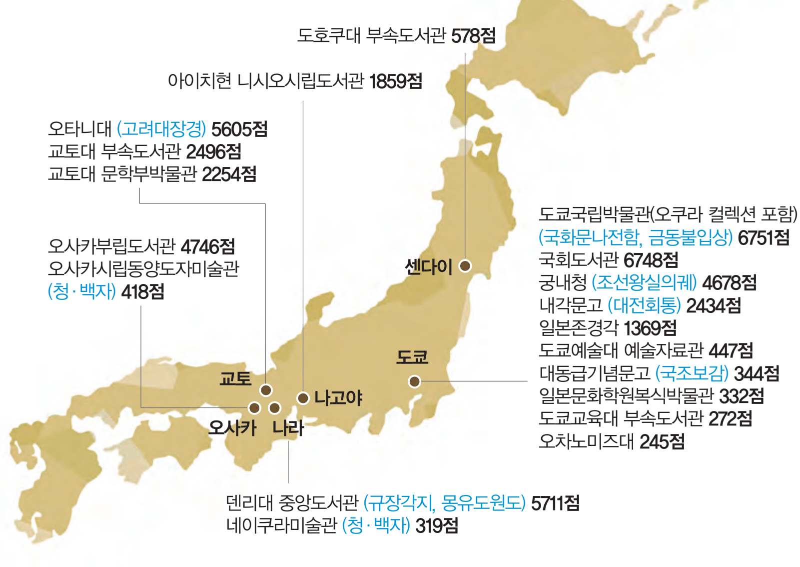
장에 따라 '인도'가 아니라 '반환'이라고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일본은 '인도'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양측은 '반환'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를 인도한다'는 표현을 쓰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11월 9일 국무회의에서는 돌려받는 문화재를 놓고 '반환'이냐 '인도'냐는 토론이 오갔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우리 것을 (일본이) 가져간 것이니 당연히 반환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도 "일본 입장에선 인도라고 해도 우리 입장에선 반환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번 도서 반환은 일본의 강제병합 1백 년을 맞아 지난 8월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발표한 담화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문화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내 주요 한국 문화재 현황 ( )는 주요 유물
총 250개 기관 및 개인 : 6만1409점



〈경연도서〉, 〈제실도서〉는 반환 목록서 제외

간 나오토 총리는 8월 10일 담화에서 한일강제병합을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하며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거쳐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를 인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왕실의궤〉 환수운동을 펼쳐온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는 11월 9일 서울 조계사 중앙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재 환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환수위는 2006년 창립 이래 4년간 한일 양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남북 불교계, 지방자치단체 등과 뜻을 모아 문화재 환수운동을 전개해왔다.

환수위 사무처장 혜문스님은 "〈조선왕실의궤〉는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에 포함된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에 의거해 돌아오는 것이므로 한일 관계에서의 분명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제실도서〉, 〈경연도서〉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우리가 유통 경로를 입증하지 못했고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궤의 경우 환수위가 4년 동안 일본 외무성에 지속적인 반환을 요구했고 국회 결의안도 2차례나 채택했다.

환수위는 문화재 환수도 중요하지만 환수 이후의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문스님은 "의궤 역시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지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서둘러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수위는 11월 8일 국회에 '일본 궁내청에서 되찾은 의궤 국보지정 청원'을 제출했다.

우리 정부는 광복 후 60여 년간 해외 유출 문화재 반환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7천5백여 점의 문화재를 회수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우리 문화재가 해외에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는 10만7천8백57점이고, 일본에만 6만1천4백9점이 있다.

1970년 11월 14일 제16차 유네스코 총회의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은 "외국 군대에 의한 일국의 점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강제적인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술국치 1백 년이 되는 올해 국보급 유물인 〈조선왕실의궤〉 등 해외 반출 문화재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혜문스님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강탈 문화재 환수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궤는 일본 궁내청, 즉 천황궁이 소유하고 있던 문화재인데도 수년간 노력으로 가능해졌다"며 "북관대첩비, 실록, 의궤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의 노력 여하로 결정될 문제이지 법적 한계를 논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G

글·이혜련 기자

*권(卷)은 내용(주제)상의 한 묶음, 책(冊)은 물리적으로 종이를 묶은 단위.

월드컵, 이번엔 단독 유치다

2022년 월드컵 개최지 12월 2일 결정… 미국과 경쟁

4강 신화를 이룬 2002 한일월드컵이 끝나고 많은 국민들이 공통된 질문을 넋두리처럼 던졌다. 살아생전에 한국이 월드컵을 다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냐고 말이다. 당시엔 이런 넋두리가 현실성이 없는 말로 들렸지만 상황은 급변했다. 정부와 월드컵유치위원회가 2022년 월드컵 단독 개최에 적극 뛰어든 것이다. 일사불란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부의 월드컵 유치 노력을 들여다봤다.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이 가까워오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2월 2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집행위원회에서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지를 동시에 결정한다.

일단 2018년 월드컵은 유럽 국가 중 한 곳이 유력하다. 축구 종주국인 영국이 현재로선 유력 후보다. 2022년 월드컵을 놓고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카타르, 호주 등이 경쟁 중이다. 현재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팽팽한 각축전 양상을 띠고 있다.

개최지 선정일이 가까워지면서 막판 표심 다지기가 치열하다. 최근에는 투표권을 가진 FIFA 집행위원들이 일부 후보지로부터 지지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FIFA 윤리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도 했다. 그만큼 각국 유치위원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정몽준 FIFA 부회장을 앞세워 2022년 월드컵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1월 8일에는 FIFA 수장인 제프 블래터 회장이 방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블래터 회장을 만나 만찬을 함께하며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하고, 2022년 월드컵 개최의 국민적 열망과 의지를 전달하고 지지를 당부했다.

월드컵 유치 시 세계축구발전기금 7억7천7백만 달러 약속

블래터 회장은 "한국은 2022년 월드컵 준비를 잘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미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했을 당시 블래터 회장을 만나 한국의 월드컵 개최 당위성과 뜨거운 축구 열기를 전한 바 있다.



동아DB

11월 8일 청와대를 방문한 제프 블래터 FIFA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년 월드컵유치위원회는 이번 월드컵 개최가 한반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측면을 제1의 홍보전략으로 삼고 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월드컵을 단독 개최하게 될 경우 동북아 평화 기여를 위해 일부 경기를 북한에서 치르는 방안을 계획서에 담았다.

또한 2022년 월드컵을 유치할 경우 세계축구발전기금으로 7억7천7백만 달러를 내놓기로 약속했다. 6개 대륙연맹에 지원금을 고루 전달해 전 세계의 축구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한국이 경쟁국보다 앞서 있는 부분은 월드컵 개최를 위한 인프라다. 한국은 이미 2002 한일월드컵을 치러본 만큼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서울, 울산, 전주, 제주 등 세계 수준의 기존 월드컵 경기장은 지금 그대로 월드컵을 치르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또한 교통과 숙박, 방송, 정보통신, 인터넷 시설 등에서도 다른 개최 국가에 비해 우위에 있다.

또 하나 무기는 열정적인 축구 열기다. 2002 한일월드컵에서 보여준 한국민들의 응원문화는 사실상 월드컵 거리 응원의 모태다. FIFA가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시도한 '팬 페스트', 즉 팬들이 거리에서 기거하며 공동 응원을 펼치기 위해 만든 시설은 바로 한국의 거리 응원을 본떠 탄생했다.

한국은 이러한 '팬 페스트'를 세계 축구 응원의 장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월드컵 유치 계획서에 담았다.

"한반도 평화 기여" 제1 홍보전략

월드컵 개최지는 FIFA 집행위원 24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각국 유치위원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국에서는 정몽준 FIFA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 집행위원들을 접촉 중이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월드컵 유치에 '올인'을 선언하고 거의 모든 축구 관련 국제행사에 참가해 2022년 월드컵 한국 유치를 홍보하고 있다.

정 부회장이 외교전에 뛰어드는 사이 월드컵 유치위원회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FIFA는 집행위원회에 앞서 각 개최지가 공동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한국은 후보지 가운데 두 번째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다. 다른 후보지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전략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심혈을 기울여 작업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막판 변수도 적절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2002 한일월드컵 유치 당시 한국의 최후의 카드는 바로 공동 개최였다. 당시 한국은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었다. 일본이 집행위원들의 표심을 대거 잡은 상황이었다. 한국은 공동 개최라는 카드로 일본과 FIFA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뜻을 이뤘다. 그렇듯 이번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도 판도가 어지럽게 전개될 경우 여러 카드를 활용해야 할 상황도 나올 수 있다.


동아DB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축구연맹(FIFA) 실사단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몽준 FIFA 부회장이 올해 아시아축구연맹(AFC) 모하메드 빈 함맘 회장과 오랜 대립관계를 청산한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함맘 회장은 카타르 출신으로, 월드컵 유치 경쟁국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2022년 월드컵 유치를 앞두고 경쟁국인 카타르와의 빅딜 가능성도 우리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한국의 강력한 경쟁 상대는 일본이 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를 동시에 노리다 최근에 2018년을 포기하고 2022년에 전념하기로 했다. 미국은 FIFA에 흥행과 엄청난 수입을 약속했다. FIFA는 프로스포츠가 발달한 미국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것이 월드컵 흥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흥행 면에선 이미 1994년 미국월드컵 때 놀랄 만한 성과를 입증했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미국 월드컵유치위원회 관계자가 최근 터진 FIFA 집행위원의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 등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국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 월드컵유치위원회 관계자는 "2개 월드컵 개최지가 동시에 결정되는 탓에 집행위원들의 표심을 예측하기 힘들다. 그만큼 변수가 많은 게 이번 개최지 선정"이라며 "누가 막판까지 집중력을 갖고 홍보를 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연 20년 만에 한국에서 월드컵을 다시 열 수 있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

글 · 최용석(스포츠동아 기자)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G20 계기로 세계 자유·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로"



동아DB

김양 국가보훈처장

올해는 우리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주기 행사들이 유독 많았던 해다. 안중근 의사 순국 1백 주년, 6·25전쟁 발발 60년 등 큼직한 행사들을 무사히 마치고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돌아보기에 앞서 우리에게는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날이 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분들을 위한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이다.

11월 17일은 망국의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이다. 그날의 치욕을 잊지 않고 광복 의지를 다지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71년 전 이날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했다.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은 매년 정부가 주관한다. 행사에 참여하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사진을 슬라이드로 볼 수 있다. 그들은 가만히 숨죽이며 암흑의 시대가 지나가길 기다릴 수도 있었고 신념을 꺾었다면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소중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오늘의 대한민국 있게 한 순국선열들 기려야

독립운동가이자 작가인 심훈 선생은 옥중에서 어머니께 이런 편지를 남겼다.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조금도 저를 위하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조선에는 우리 어머니 같으신 어머니가 몇천 분이요, 또 몇만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중략) 저는 어머니보다도 더 크신 어머니를 위하여 한 몸을 바치려는 영광스러운 이 땅의 사나이외다."

편지는 감옥의 생지옥 속에서도 누구 하나 괴로워하지 않으며, 뉘우침과 슬픈 빛을 보이지 않고 눈이 샛별처럼 빛나고 있다고 전한다.

당시 수천수만 명의 조선 젊은이들이 일신의 안위를 버리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했다. 투옥된 수많은 젊은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누구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부모와 형제들도 어머니보다 더 큰 어머니를 위해 몸 바치는 자녀들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든든히 지켜줬다.

그들은 소중한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남겨줬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가꿔나가느냐는 우리 손에 달렸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세계 속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국가 중 하나로서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을 이끌게 됐다.

11월 11일과 12일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세계 속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국가 중 하나로서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을 이끌게 됐다. 아무도 우리의 억울함에 귀 기울여주지 않아 통분했던 아시아의 작은 국가가 이제는 세계 경제 질서와 규범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한한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 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또 다른 도약기를 맞았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에 더 많이 기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다. G















기 획 특 집

서울 G20 정상회의 성료

세계로 떨친 코리아 리더십

서울 G20 정상회의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의장국인 대한민국 주도로 G20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서울 액션플랜'에 합의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개도국이 함께 번영과 발전을 누리기 위한
역사적 성과물을 이뤄낸 것입니다.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감동이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거둔 자신감과 성숙함이라면
선진 일류국가의 꿈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세계경제 미래 여는 전환점

'G20 서울선언' 채택… IMF 개혁·환율 문제 실질적 성과 거둬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이틀간의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서울선언'이 발표됐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주요 20개국 정상이 우리나라에 처음 모인다는 의미 외에도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이 주최하는 첫 G20 정상회의, 아시아에서 열린 첫 G20 정상회의란 점에서도 주목을 받으며 주요 의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Shared Growth Beyond the Crisis)'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5차 G20 정상회의가 11월 11, 12일 서울에서 개최돼 '서울선언'이 발표됐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G20 회원국과 5개 비회원 초청국, 7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및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비회원 초청국은 에티오피아, 말라위, 스페인, 싱가포르, 베트남 등 5개국이며 국제기구는 국제연합(UN),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2일 오후 정상회의가 열린 코엑스에서 '서울선언'을 발표하고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 일정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언론인 여러분, 서울 G20 정상회의가 방금 막을 내렸다"고 전하고 "이번 정상회의는 그간 G20가 지향해온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위해 의미 있는 성과 도출

가장 큰 성과로 "기존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밝힌 이 대통령은 "'서울 액션플랜(Seoul Action Plan)'은 G20 차원의 정책공조와 함께 개별국가들의 실천적 정책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다. IMF 개혁과 환율 문제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제안에 따라 G20에서 처음으로 개발 의제를 다루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계경제의 앞날을 위해 G20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서울선언의 본문, 3개 부속서(Annex), 1개 첨부문서(Supporting Document)에 합의했다.

본문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Framework)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 ▲무역 ▲반부패 ▲비즈니스 서밋 등에 대한 합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3개 부속서는 '다 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G20 반부패 행동계획'이며, 첨부문서는 'G20 회원국들의 정책공약표'다.

정상들, '서울선언' 본문·3개 부속서·1개 첨부문서 합의

정상회의 첫날 환영만찬에 참석한 정상들은 11월 12일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업무오찬을 곁들이면서 '마라톤회의'로 이어졌고,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아래 '서울선언'이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날 정상들은 ▲제1세션 '세계경제 및 프레임워크'에서 환율 논쟁을 포함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 관련 논의를 했으며 ▲제2세션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에서는 IMF의 탄력대출제도 강화 등 그간의 성과를 환영하고 추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진 ▲제3세션 '개발 의제'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등과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며 ▲제4세션 '금융규제 개혁'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 등이 논의됐다.

또한 이 대통령은 11월 11일 개최된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결과를 소개한 뒤 이날 발표된 비즈니스 서밋 공동선언의 의의에 대해 각국 정상들에게 이해와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선언이 발표된 다음 코엑스 기자회견장에서는 세계적인 사회적기업 커뮤니티인 아쇼카 재단의 발표로 'G20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 수상자 14명이 공개됐다.

이날 발표된 수상자는 '뱅크 오브 더 필리핀 아일랜드(BPI)' '에퀴티 포 아프리카' '메디컬 크레디트 펀드' 등이다. G20는 이 같은 우수 사례들을 실행하고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EPA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정상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각국의 이견을 조정해 모든 의제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동아DB

내년 상반기 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

G20 신뢰성 제고·세계 경제협력 위한 최상위 포럼 자리매김

서울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위기 이후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경제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시장 결정적(Market-determined) 환율 제도를 지향하기로 하고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시기적으로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긴급한 상황에서 위기 이후의 시대(beyond crisis era)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개최됐다.

이번 정상회의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G20 국제공조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대두된 가운데 G20의 정책공조를 재확인하고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G20의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비(非)G7 국가에서, 그리고 새로운 경제 중심축의 하나로 떠오른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돼 신흥국 입장에서 새로운 의제를 주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위기극복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신흥국 그룹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그간의 선진국 중심 논의에서 나아가 신흥국의 관심 이슈를 G20 중점 의제로 추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그리고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등을 주도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이러한 의의는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Shared Growth Beyond Crisis)'이라는 슬로건에 집약적으로 반영됐다.

구체적인 의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키로 한 모든 의제에 걸쳐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 의제에 대해서는 이전의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으며, 신규 의제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향후 논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G20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정착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환율 문제,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지향하기로 합의

먼저 기존 의제인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프레임워크·Framework)'를 구축하는 방안으로서 '서울 액션플랜(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서울 액션플랜은 G20의 정책공조 방안과 개별국가별(Country-Level) 정책 약속들을 종합한 행동계획이다.

프레임워크의 한 분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환율 문제는 시장 결정적(Market-Determined) 환율 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도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마치고 '서울선언'을 발표하며 "환율 문제 등이 합의된 대로 이행된다면 미래 세계 경제 위기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개최된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워킹그룹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대안을 만들고 2011년 프랑스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처럼 세계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환율정책에 대한 공조 방향에 합의하고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한 것, 특히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향후 논의 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별 성과

의제	성과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	• G20의 중기 정책공조 방향인 '서울 액션플랜'을 마련. 재정, 통화·환율, 금융, 구조개혁, 무역·개발 등 5개 정책 분야에 걸친 G20의 정책공조와 국가별 정책공약(Commitments)으로 구성 • 예시적 가이드라인 등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첫 번째 상호평가를 내년부터 착수 수행하기로 합의 • 환율정책의 공조 방향에 대해 합의
금융규제 개혁	•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강화방안(보통주 자본 대폭 증대 2→7%) 마련 •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방안 마련(손실흡수능력 강화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 수준 이상으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방안에 합의 • 과소대표국(6.2%), 역동적인 신흥개도국(6.0%)으로 6% 이상 쿼터 이전 (피츠버그 합의사항인 5% 초과 달성) •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확대 위해 이사회 재구성에 합의. 유럽 2석을 신흥국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강화, 예방대출제도 신설(PCL)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위한 국제공조 강화 합의 • 지역별 안전망(RFA)과 IMF 협력기반 구축
개발	• '다 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채택 • 다년간 행동계획 채택.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등 9개 분야에서 이행가능한 과제 제시
금융소외계층 포용	• 저소득층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 마련 •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G20 및 비G20 국가, 국제기구, 민간단체 간 유기적 네트워크 설립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액션플랜 마련
에너지	• 화석연료보조금 : 2011년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토론토에서 제출된 국가별 개선계획 이행 경과 점검하기로 합의 • 에너지 가격 변동성 :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를 구체화 • 해양환경 보호 : 국제 규제현황 점검 결과 확인하고 모범 사례 공유작업 지속키로 합의
무역	• 보호주의 저지 위한 국제공조 합의. 2013년까지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 설치 또는 수출제한조치 동결(standstill) 하기로 한 약속 재확인 •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진전 등 무역 자유화에 기여
반부패	• G20 반부패 실무그룹이 마련한 반부패 공조를 위한 행동계획에 합의 •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진전 현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함.
비즈니스 서밋	• 위기 이후 경제성장 논의하기 위해 최고위급,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포럼 개최 • G20 정상선언문 최초로 비즈니스 서밋에 대한 환영 및 지속 개최 지지 반영 • 녹색성장,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개발 격차 해소 등 비즈니스 서밋 주요 권고사항 정상선언에 반영

전을 위해 정상들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한 것은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합의대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의 6퍼센트 이상과 선진 유럽국가의 이사직 2석을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무역 분야, 무역자유화 확대해나간다는 G20 의지 확인

이로써 신흥국의 높아진 비중을 반영하게 됐으며, 또한 IMF의 재원 역시 2배로 증액됨으로써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을 갖게 됐다.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세계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New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의 구체적인 개혁조치에 합의했다.

우선 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늘리도록 했으며 한 국가나 세계경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했다. 또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무역 분야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G20 차원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를 재확인했다. 특히 내년이 협상 타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임을 감안해 막바지 협상(End Game)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무역자유화를 확대해나간다는 G20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은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주도한 신규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분야에서는 자본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경제위기와 그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처럼 개방된 세계 금융체제에서는 경제 기반이 튼튼한 나라도 일시적인 외환 부족으로 경

G20 정상회의는 각국의 이해가 맞서는 의제들을 놓고 각국과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과 합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동아DB



동아DB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머리를 맞댄 채 담소를 즐기고 있다.

제위기를 겪게 된다.

그동안 G20는 이를 막기 위해 IMF의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출해 주는 탄력대출제(FCL)와 예방대출제(PCL)를 마련해왔다. 또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FCL for multiple countries)도 도입하기로 했다.

IMF가 '위기 해결(Crisis Resolution)'만이 아니라 '위기 예방(Crisis Prevention)'에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큰 변화다. 그간 IMF의 정책 처방이 엄격해 경제위기를 겪는 나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IMF 대출 자체가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낙인효과(Stigma Effect)'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IMF의 대출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20 정상들, 비즈니스 서밋 지속 개최 지지

개발 의제와 관련해서는 '다 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채택했다. 서울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활발한 원조를 계속하는 한편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개발전략이다. 이는 개도국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자생력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도국 경제가 성장하면 세계경제의 지속성장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컨센서스에 대해 "개발도상국을 세계경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개발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G20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나갈 것이며 더욱 구체화되고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성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최고위급,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포럼인 비즈니스 서밋에 대해서도 G20 정상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속적인 개최를 지지했다. 비즈니스 서밋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공·민간의 파트너십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니며 G20 정상회의의 주요한 축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G20 정상들 한국 칭찬·호평 이어져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의 한국에 대한 칭찬과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1월 11일 이화여대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한국은 G20 체제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중재자 역할을 훌륭하게 해왔다"고 평가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정착에 모두 성공한 만큼 세계 곳곳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경제기적과 분단이라는 한국과 독일의 공통점을 거론하며 "먼저 통일을 이룬 국가로서 한국이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11월 12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극적인 결과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국 정상들의 노력이 단계적으로 더 강한 국제적 메커니즘과 제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세계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각국 사이의 긴장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도 "여러 정상들이 말씀했듯 이 대통령과 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마지막 세션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의 효율성을 보여준 회의였고 각국의 격차도 해소할 수 있는 회의였다"면서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발휘된 덕분이 컸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창설된 '비즈니스 서밋'에 대해서도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총재는 "대성공이다. 제도적 공고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동아DB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1월 11일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으로부터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뻥 뚫린 서울 길… 취재 지원… 열정적인 자원봉사자…

성숙한 '시민의식' G20 성공 이끌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의 배경에는 1년여에 걸친 철저한 준비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다. 매끄러운 정상회의의 진행과 세계 각국 취재진을 위한 완벽한 지원, 자원봉사자들의 열정, 대중교통을 이용한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 개최로 이끈 요소는 바로 우리 안에 있었다.

"매우 준비가 잘된 정상회의입니다. 어딜 가건 한 번도 줄을 서서 기다린 적이 없어요."

11월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의 G20 정상회의 미디어센터에서 만난 러시아 NTV 채널의 셰르게이 모로조프 리포터는 "특히 인터넷 연결과 같은 정보기술(IT) 서비스가 인상적이고 통역과 각종 편의시설 준비가 매우 잘돼 있다"고 호평했다. 그는 "캐나다 토론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G20 정상회의 취재"라며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데 미디어센터와 숙소 사이를 오가는 셔틀버스와 택시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 만족해했다.

중국 〈청두상바오(成都商報)〉 뉴스센터의 왕한 기자는 "한국 방문이 처음인데,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며 풍경이 아름답다. 한국음식도 아주 맛있다"며 웃었다. 그는 "특히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내 목적지로 가기 위해 열성인 택시운전기사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손지애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이전 정상회의의 선례를 볼 때 준비위원회에 사전 등록한 기자 4천2백여 명 중 절반 정도만 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3천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려와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 바람에 코엑스 상가 식당들이 문을 닫는 정상회의 기간 이틀 동안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점심, 저녁 식사도 부랴부랴 3천7백명분까지 늘려잡아야 했다.

통역 수신기·홍삼라떼 등 외국 기자들 "원더풀 코리아!"

1천3백 석의 좌석이 마련된 미디어센터는 G20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이 개막되기 전인 11월 9일부터 문을 열고 세계 각국에서 속속 입국하는 기자들을 맞았다.

좌석마다 인터넷선과 전원, 동시통역 수신기 등이 준비됐고 14개 언어 자원봉사자, 노트북을 포함한 IT제품 렌털과 소모품 판매 등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돕기 위한 각종 서비스가 유·무료로 제공됐다.

언어 자원봉사자인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생 김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미디어센터에서 G20 정상회의를 취재 중인 중국의 왕한 기자와 러시아의 셰르게이 모로조프 리포터. 이들은 정상회의 취재 지원과 한국의 여러 모습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렸다(왼쪽). 미디어센터 내 홍삼카페는 한국인삼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됐다.







서울 G20 정상회의 주회의장인 삼성동 코엑스 주변 도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동차 2부제 참여로 시원하게 뚫려 있다.

아(24·아랍어) 씨는 "아랍어권 기자들도 참석해 웹하드 주소, 미디어센터 내에서 식사할 곳과 이용 시간 등을 묻기도 했지만 서울의 이모저모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처음 선보인 '테크니컬 콜 서비스'는 각국 기자들의 기사 작성 도구인 노트북에 생긴 문제 해결에 구세주가 되어주었다.

이 서비스는 기자들이 앉은 좌석 중간 중간에 설치된 벨을 누르면 IT 전문가가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를 담당한 김경록(29) 씨는 "하루 10건 정도 벨이 울렸다"며 "특히 인도네시아 기자가 인터넷 환경설정이 제대로 안 돼 송고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결해준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자율적 자동차 2부제·평화시위로 성숙한 배려의식 보여

미디어센터 내 한국인삼공사의 '홍삼카페'는 '홍삼라떼'로 인기만점이었다. 권오복 한국인삼공사 지속경영부장은 "홍삼라떼가 하루 2천5백 잔씩 제공돼 이곳 홍삼카페는 해외수출을 위한 '테스터마케팅 베드' 역할을 잘 수행했다"며 "각국 기자들의 반응이 좋아 현재 일본에만 수출하고 있는 홍삼라떼의 해외수출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 중 각국 기자들도, 서울 시민들도 깜짝 놀란 일이 시원하게 뚫린 서울 시내 도로교통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정상회의 기간 중 오전 7~9시 서울 강남지역 12곳의 교통량을 측정해 일주일 전과 비교한 결과 11일은 7.4퍼센트, 12일은 6.7퍼센트가 줄었다. 서울 시내 전체 46곳의 교통량도 4.1퍼센트 감소했다.

특히 주회의장인 코엑스 옆 포스코사거리의 교통량이 일주일 전에 비해 78.1퍼센트나 줄어드는 등 강남지역 교통 상황은 마치 '휴일 풍경'을 보는 듯했다.

장안실업 소속 택시운전기사 여수찬(65·경기 광명시 철산동) 씨는 "정상회의 첫날 아침 뻥 뚫린 서울 거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훌륭하고 자랑스럽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외국에서 열린 G20 행사 때마다 세계화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반대해 과격·폭력 양상으로 흐르던 반대 집회도 충돌 없이 마무리돼 '평화 서울'을 세계에 알렸다. 주회의장이 있는 코엑스나 각국 정상의 숙소 등지에서 벌인 몇몇 1인 시위를 제외하곤 돌발상황도 벌어지지 않았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가장 막중한 업무였던 경호·경비도 조용히 마무리됐다.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된 5만여 명은 혹시 있을지 모를 테러에 대비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의 경호 업무를 별 탈 없이 수행했다. 이 모든 요인이 합쳐져 성공적인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가능했다. G

글·박경아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동아DB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월 11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포옹하고 있다.

참가국 개별 정상회담… 상호 협력 재확인

한·프랑스 정상 외규장각 의궤 대여에 합의
한·미 정상 北 진정성 보이면 6자회담 재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 우리나라에 집결한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과 심도 있는 개별 접촉을 가졌다. 철저히 준비한 만큼 회담 성과도 알찼다. 이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이 벌인 개별 정상회담, 그 숨 가쁜 이틀을 살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 공식 행사를 소화하면서도 각국 정상들과 마라톤회담을 갖는 등 그야말로 초인적인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12일 본회의에 앞서 전날 하루에만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브라질 등 5개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 이번 개별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프랑스가 보관 중인 외규장각 의궤 도서의 사실상 반환 합의다.

이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1월 11일 가진 개별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1866년 한국이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외규장각 의궤 296권을 일괄 대여해 5년 단위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한국에 반환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BNF)에 소장돼 있는 외규장각 왕실 의궤 전체를 한국에 대여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수교 1백30주년이 되는 2015~2016년에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추진키로 했다.

"한·EU FTA 발효 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될 것"

이로써 18년간 끌어온 외규장각 의궤 반환 협상은 최종 마무리되고 마지막 실무 협상을 거쳐 반환되는 절차만 남게 됐다.

이 대통령은 11월 11일 오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한·유럽연합(EU) FTA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향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지난 10월 서명된 한·EU FTA 발효 시 양국 간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EU FTA가 예정대로 내년 7월 1일로 발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상호 보완적인 실질적 협력을 주제로 메르켈 총리와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실질적 협력이 가장 증진될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며 "FTA가 발효되기 전에 기업인 등 각계 인사들로 포럼을 만들어 협력 증진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예정된 30분을 훨씬 넘겨 1시간 15분간 진행됐을 정도로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갔다. 우선 정상회담 직전까지 협상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한미 FTA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윈윈과 동맹을 생각해서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궁극적으로 양국에 도움이 되면 계속해나가야 된다"는 뜻을 밝혔다. 일단 이 대통령도 "좋은 성과를 내자"는 선에서 희망적인 향후 협상 결과를 기대했다.

현안 논의에서도 양국 정상은 이견 없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핵 및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은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하려면 북한은 진정성을 보여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신호가 보인다면 그때 다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고, 이 대통령도 같은 의지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와 미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Grobal Green Growth Institute)를 설립하는 등 녹색성장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대화가 주로 오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발전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요청했고, 후진타오 주석은 한국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지지와 공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진전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뜻을 교환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바뀐 이후에 한중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전면적인 관계로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계층의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이 신뢰를 쌓는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한·러시아, 나로호 3차 발사·유전가스전 개발 협력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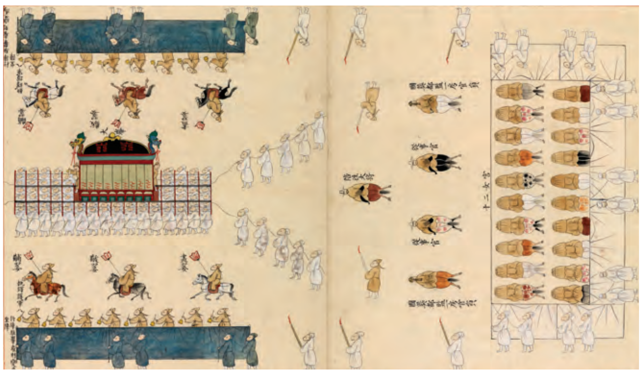
한편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선 브라질이 추진 중인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및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가 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에게 올해 말 입찰 예정인 브라질 고속철 사업 등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활발한 브라질 투자를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났다.

서울 G20 정상회의 전날인 11월 10일 열린 한·러시아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동북아 역내 핵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양국 수교 20년을 맞아 나로호 3차 발사 성공과 유전가스전 개발 등 첨단과학기술 및 에너지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와도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과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이 조기 타결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G 글·유재영 기자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외규장각 도서 중 하나인 '영조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와 동일한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서울대 규장각 소장).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세계 주요 정상들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 빛났다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한국의 매력 알려

지난 1년여 동안 정부 관계자와 국민 모두가 함께 준비했던 서울 G20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높이고 세계 속에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각인시키는 데 충분한 시간이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11월 12일 서울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Shared Growth Beyond The Crisis)'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마무리됐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날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돼 세계 각국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더 나은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함께 논의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민관이 협력하는 상생 모델로 글로벌 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문화의 장(場)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G20 정상회의 첫날 만찬이 열린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한국의 상징물인 국보급 문화재들 중에서도 엄선된 명품 문화



동아DB



동아DB

재 14건이 전시됐고, 김윤옥 여사 주재로 진행된 배우자 프로그램은 창덕궁, 한국가구박물관 등에서 열려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렸다.

G20 정상회의가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도 각국 정상과 경제인, 언론인들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이 곳곳에 마련됐다. 정보기술(IT) 한국 체험관, '미디어 첨성대', 〈난타〉 무료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이 우리나라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G

글 · 김민지 기자

1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광장에 등장한 서울 G20 정상회의 기념 조형물. 각국 정상의 얼굴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밝게 비춰 밤에 더 아름답게 빛났다.
2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린 코엑스 동관 로비에는 '미디어 첨성대'가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 실물의 3분의 2 크기인 6미터 높이로 복원된 첨성대는 1천3백여 장의 LED 화면으로 만들어졌다. 류재하 경북대 교수의 작품.
3 문화재청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우리 궁궐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6백15년 만에 처음으로 경복궁을 야간에 개방했다.



동아DB



연합



3

조영철 기자



1



2

연합

1 서울 G20 정상회의장에 모인 각국 정상들이 11월 12일 회의 전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다.
2 서울 G20 정상회의 본회의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3 11월 12일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 시상식'에 이명박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등 정상 3명이 참석했다.
4 코엑스 건너편 한국전력 강당에 마련된 서울 G20 정상회의 등록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전 세계에서 찾아온 외신기자들과 내신기자들로 북적였다.
5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전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이 먼저 열렸다. 첫 번째 세션 무역투자는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 주관으로 열렸다.



4

동아DB



5

연합



1

연합



2

연합



3

연합



4

조영철 기자

1 김윤옥 여사는 서울 G20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한국 전통문화 알리기에 힘썼다. 11월 12일 서울 창덕궁 연경당에서 한복 패션쇼를 관람한 뒤 모델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2 창덕궁 한복 패션쇼 관람을 마친 뒤 김윤옥 여사와 서울 G20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 배우자들은 서울 성북동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오찬으로 한식을 즐겼다.
3 11월 12일 창덕궁 후원에서 열린 한복 패션쇼는 이영희 디자이너가 진행해 서울 G20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 배우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4 서울 G20 정상회의 이틀째인 11월 12일 오후 회의장인 코엑스 부근의 안전과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경찰이 3륜 전기스쿠터를 타고 순찰을 돌고 있다.
5 서울 G20 정상회의 첫날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업무만찬으로 시작됐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 마련된 G20 정상회의 업무만찬에 참석한 세계 정상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5



동아DB

경제위기 이후 지속 성장 방안 논의

"비즈니스 서밋, G20 정상회의와 상호 보완관계 지속돼야"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열린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이 11월 10, 11일 공식 일정을 마쳤다. 1백명이 넘는 전 세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세계경제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끝에 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 중지(衆智)를 모았다.



1백명이 넘는 글로벌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민관 협력채널로서 이번에 처음 열린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은 세계경제가 균형성장의 길로 복귀하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보다 하루 앞서 열린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이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한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를 세계 각국에 각인시키며 성공리에 폐막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와 함께 마련된 비즈니스 서밋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처음 열린 행사다.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실물경제를 이끄는 세계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각국 정상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만 글로벌 경제에 대해 논의했던 아쉬운 점을 해소하고 G20 민관 협력 채널의 최상위 포럼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처음 개최된 비즈니스 서밋에는 G20 회원국뿐 아니라 비(非)G20 국가 등 총 34개국에서 1백20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들 기업인들이 이끄는 기업은 금융, 에너지,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 포진해 있으며, 평균 고용 규모는 10만명이 넘는다.

참석한 120여 기업 평균 매출액 440억 달러

비즈니스 서밋은 처음 열렸지만 서울 G20 정상회의만큼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실물경제를 이끄는 CEO들이 경제 활성화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민간기업 부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서밋 개막총회 환영 연설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갈 주체로 '기업'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지려면 궁극적으

로 기업이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즈니스 서밋 개최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한 글로벌 CEO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무려 4개월여에 걸쳐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4대 분과의 12개 소주제별 워킹그룹을 꾸려 소관 현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각 워킹그룹에 속한 14명의 의장들은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야 할 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사전 보고서에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된 11월 11일, 기업 총수와 CEO들은 분과별로 10명씩 배정돼 최종 토론을 벌였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12개국 정상들도 원하는 워킹그룹에 함께했다.

무역투자·녹색성장·금융 등 합의… 공동성명 채택

세 번에 걸친 라운드테이블 끝에 사전 보고서의 합의 내용들이 공동성명서로 최종 확정됐다. 성명서는 총 66개 건의사항으로 돼 있으며, 글로벌 민관 협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권고사항과 기업의 자발적 행동을 촉구한 사항, 각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무역투자 분과는 국제무역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내년까지 도하개발어젠다 타결을 위해 G20 정상들이 직접 개입해 보호무역주의 수준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금융 분과에서는 재정 출구전략은 정부 지출 삭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긴급한 재정위기가 아니라면 세금 인상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성장 분과에서는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건설, 전력, 제조, 운송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녹색에너지 사용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과는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개발도상국의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앞으로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주목받았다.

각 워킹그룹 의장들이 모인 비즈니스 서밋 폐막 기자회견에서 대표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페터 브라베크 네슬레 회장은 "이번 비즈니스 서밋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례화돼 다음 회의에도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빅터 펑 리&펑그룹 회장 역시 "서울에서 시작된 비즈니스 서밋이 G20 정상회의와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계속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주요 내용

• 무역투자

무역 확대 방안	· 2011년까지 도하개발어젠다 타결 완료에 주력
	· 신자본 규제(바젤Ⅲ)에서 무역금융 규제 완화
	· 무역과 투자를 G20 정상회의 고정 의제 채택
	· 보호무역주의 수준을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무역금융 분야 규제 완화
외국인 직접투자	· 외국인 직접투자의 장애요인 제거
	· 명확하고 강제성 있는 법적 체계 확립
중소기업 육성	· 금융계에 중소기업 대출 장려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 혁신기술 개발펀드 설립
	·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가치 증대

• 금융

금융과 실물경제	· 글로벌 자본시장 확대와 일관된 국제 규제기준 마련
	· 신흥시장에 신용평가기관 추가 설립 촉진
출구전략	· 경기부양책 점진적 철회
	· 통화정책을 중립적 위치로 환원
인프라·자원개발 투자	· 정·재계 리더가 이끄는 민관 워킹그룹 구성
	· 민간 워킹그룹이 투자 우선순위 설정
	·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정의
	·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가치 증대

• 녹색성장

에너지 효율	· 장기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 기업의 장기적 투자에 도움 주는 금융 솔루션 제공
	· 신기술 개발 위한 교육 및 서비스, 연구개발 지원
신재생에너지	· 시장 중심의 탄소가격제도 형성
	· 에너지 장관회의 정례화
녹색일자리	· 녹색산업 투자유인정책 수립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혁신과 생산성	· G20,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와 재계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설립해 혁신활동 장벽 제거
청년실업	· 일자리 창출 위한 인센티브와 정책 제공
	· 민·관·학 파트너십 구축해 취업 교육
개도국 의료 확대	· 국제 보건문제를 G20 정상회의 고정 의제로 채택
	· 글로벌 펀드 등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 개도국은 의료 부문에 예산 투자할 필요성 인식

비즈니스 서밋 공동성명서는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 때 검토된 이후 각국 정부 정책에 채택되거나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G20 정상들이 논의한 비즈니스 서밋 제도화에 대해 '민간 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인식해 향후 G20 정상회의에서도 G20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되길 희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는 내년 G20 정상회의 때 이번과 비슷한 형태의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할 예정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전 세계 취업 데이터 한곳에 모아야"

인도 IT회사 '인포시스' 크리스 고팔라크리슈난 회장

오늘날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현재 청년실업자는 8천만명에 이른다. 전 세계 청년층의 30퍼센트가 고용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려주는 수치다.

인도의 정보기술(IT) 서비스 회사인 '인포시스(Infosys)'의 크리스 고팔라크리슈난 회장은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분과 내 청년실업 워킹그룹의 의장을 맡았다. 그는 "21세기에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는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선 앞으로 필요한 업무의 속성을 예측해 청년 구직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매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팔라크리슈난 회장이 청년실업 해결에 앞장서며 의장까지 맡게 된 것은 그의 경영철학에서 비롯됐다. 기업의 핵심 자산을 양질의 인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인력개발에만 연간 1억9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고팔라크리슈난 회장은 "청년실업이 해결되기 위해선 민관이 협력해 '글로벌 리소스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철 기자

이렇듯 인재 중심 경영을 주도적으로 펼쳐온 결과 1981년 그를 포함한 7명의 엔지니어가 단돈 2백50달러로 창업한 인포시스는 현재 시가 총액 2백70억 달러의 세계적인 IT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했다. 인도의 '마이크로소프트(MS)'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2009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백대 기업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청년실업 해결, 업무 속성·구직자 능력 매칭 중요"

현재 인포시스는 12만명의 직원들이 인도를 비롯해 중국, 필리핀, 중남미 등 40여 개 지사에서 일하고 있다. 각 지사에는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매년 운영된다. 2, 3개월간 인턴으로 일하는 1백50~1백80명의 대학생들에게 업무 능력 습득과 업무 적성 확인 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팔라크리슈난 회장은 "취업교육은 청년 구직자들을 급변하는 채용 환경에 적응시키고 회사가 원하는 인재로 키워갈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떠오른 비정규직 청년 일자리 문제 역시 "취업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식산업에 걸맞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 기업과 학계,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팔라크리슈난 회장은 청년실업 워킹그룹의 활동 결과를 소개하면서 '글로벌 리소스 센터(Global Resource Center)'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각 국가마다 경쟁력 있는 일자리가 다르다"며 "이를 위해 성장 분야와 고용 창출에 관한 전 세계 취업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IT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던 인도 같은 국가의 고용 창출 모범 사례나 기업의 성장 요인 등 글로벌 취업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는 "이 센터가 청년 구직자나 교수, 기업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전하는 취업정보 보고(寶庫)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정상들에 데이트 신청해 녹색일자리 창출 요구"

세계 최대 풍력발전 설비 기업 '베스타스' 디틀레프 엥겔 회장

"'첫째도 고용, 둘째도 고용, 셋째도 고용'이라고 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의 말처럼 지금 세계는 새로운 녹색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풍력발전 설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의 디틀레프 엥겔회장은 녹색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원하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엥겔 회장은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녹색성장 분과 내 녹색일자리 워킹그룹의 의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 4개월간 현대중공업, GDF 수에즈 등 녹색기술 선진업체의 최고경영자(CEO)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실현 가능한 녹색일자리 관련 권고안을 마련했다.

우선 소비자들의 행동과 투자 결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탄소가격 설정과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소 5년 안에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제도 폐지와 환경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자유무역을 허용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녹색일자리 창출 위해선 리더들의 법 제정 투명해야"

이렇게 만들어놓은 하나의 기본안을 바탕으로 엥겔 회장은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G20 국가 정상들에게 '녹색 데이트'를 신청할 생각이다. 권고안이 서울에서만 그치지 않도록 각국에 필요한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권고사항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엥겔 회장은 녹색일자리 워킹그룹과 권고안을 만들면서 영향을 받았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밝혔다. 최근 20개 국가 2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2퍼센트가 '그렇다'고 답했다는 것.

그는 "이 같은 설문 결과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친환경적 삶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라며, "녹색기술 산업이 발전하고 녹색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베스타스는 60여 개국에 4만여 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해 풍력에너지의 대부분을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녹색기술 회사다. 특히 엥겔 회장이 2005년 취임하면서 베스타스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2004년 24억 유로에 그치던 회사 매출액을 지난해 66억 유로로 3배 가까이 늘렸으며, 3백 퍼센트 이상의 주가상승을 이끌어냈다.



조정원 기자

엥겔 회장은 "10명 중 8명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녹색기술 산업의 발전과 녹색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엥겔 회장은 녹색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선 "각국 리더들이 법을 제정하는 데 투명해야 한다"며 "특히 규제와 관련된 확실성이 뒷받침돼야 미래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색일자리가 대규모로 마련되려면 정부와 기업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정책적인 틀만 제공된다면 기업은 투자뿐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자리 창출의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조영철 기자

'History Seoul' 코스 도중 브라질 SBT TV의 율라 로차 기자가 방송용 카메라 앞에서 경복궁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경제대국 한국을 직접 보고 놀랐다"

경복궁·북촌 한옥마을·한강… 외신기자들 특별한 여행

G20 정상회의 취재를 위해 세계 각국 언론사들이 서울로 취재진을 파견했다. 서울시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외신기자들에게 서울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과 발전한 사회·경제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상회의에 앞서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한강, 청계천 등을 둘러보는 프레스 투어 행사를 열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위해 회원국 정상들과 수행원이, 비즈니스 서밋 참가를 위해 기업인들이 입국했다. 그런데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지만 누구보다도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입국한 이들이 있다. 회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취재해 전 세계로 전하기 위해 서울을 찾은 수많은 기자들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는 63개국에서 4천2백88명의 기자가 등록해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약 2천5백명)나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약 3천1백명)를 훨씬 웃돌며 사상 최대의 취재 열기를 보였다.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서울, 나아가 한국의 사회와 문화, 역사, 관광 등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서울시는 G20 정상회의 취재를 위해 기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스 투어(Press Tour)를 실시했다.

프레스 투어는 외신기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에 맞춰 구성된 12가지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는데, 취재진의 바쁜 일정을 고려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2~4시간의 단기코스로 구성됐다. 관광명소를 모두 둘러볼 수는 없지만,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프로그램이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서울의 발전상을 알린다'는 취지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2백명 이상의 외국 기자들이 사전 신청을 하는 등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테마·회의장 인근 등 12개 코스로 구성, 한국 이해 높여

12개 코스로 구성된 프레스 투어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매일 2회에 걸쳐 실시됐다. 투어는 영어로 진행됐지만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스태프가 동반해 참가자들은 의사소통

에 불편함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었다.

테마 코스는 한국의 역사를 느끼고 현재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들로 꾸며졌다.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WDC),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 도시로 선정된 서울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거리를 체험하는 '디자인 서울', 서울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준 'History Seoul', 세계적인 관광명소이자 서울의 대표적인 환경친화적 수변 문화공간인 한강을 알리는 '한강투어' 등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코스였다.

특히 'History Seoul'은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돌며 격조와 품위를 갖춘 조선왕실 문화의 진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한옥촌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를 알고 싶어 하는 외신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다.

'History Seoul'에 참여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기자는 "평소 한글의 높은 완성도에 감탄했는데, 경복궁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장소를 직접 볼 수 있었다"며 "이곳에서 한글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감탄이 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강국의 위상을 나타내기 위한 'IT 서울', 서울시의 친환경 정책을 소개하는 '난지 친환경', 도심 속 공간 체험을 통해 역사와 문화, 자연과 인간 중심의 환경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을 보여주는 '도심투어' 등도 외신기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밖에도 서울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서울성곽 남산투어'나 서울시의 교통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인 '첨단 교통 시스템(TOPIS, BMS)', 신당창작아케이드와 성북예술창작센터, 서울디자인창작지원센터를 둘러보며 차세대 디자이너들의 가능성을 확인한 '서울디자인창작지원센터' '서울시창작공간 체험투어' 등 추천 코스도 서울의 매력을 외신기자들에게 각인시켰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 통해 경제발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행사장 인근을 벗어나기 힘든 기자들을 위해선 도심에서 만나는 유적지인 선정릉과 세계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 신사동 가로수길과 청담동 패션거리 등을 둘러보는 2시간 내외의 코엑스 인근 코스를 준비했다.

투어에 참가한 브라질 SBT TV의 율라 로차 기자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다"며 "한국의 과거와 오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오늘날의 경제발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비록 G20 정상회의는 끝났지만, 서울을 향한 외신들의 관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인 프레스 투어에서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서울 그리고 한국의 매력은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생생히 전해질 것이다.

글 · 이윤진 기자

| 서울 G20 정상회의 프레스 투어 코스 |

● 테마 코스

디자인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 삼청동 디자인서울 거리
세계 디자인 수도(WDC),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 도시로 선정된 서울의 디자인 거리 체험투어

IT 서울
DMC홍보관 ➔ 디지털 파빌리온 ➔ 한국영화박물관
세계 최첨단을 자랑하는 IT산업의 우수성과 한국영화발전의 가능성 홍보

한강 투어
여의도 한강공원 ➔ 선상 프레스 투어(승선 투어시간 1백 분)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회복'과 '창조'를 기조로 한강공원 소개와 선상투어

History Seoul
경복궁 ➔ 북촌 한옥마을
6백 년 역사를 담고 있는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접할 수 있는 공간 소개

난지 친환경
월드컵공원 ➔ 마포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를 친환경적 생태공간으로 바꾼 환경 이슈 경험

도심 투어
청계천문화관 ➔ 청계광장 ➔ 광화문광장
청계천 복원으로 도심 환경개선 체험, 청계광장에서 광화문광장을 잇는 도심 공간 체험

● 코엑스 인근 코스

선정릉 일대
선정릉 ➔ 국기원 ➔ 강남대로 U-Street, U-쉼터
이례적으로 도심 한가운데에 보존된 유적지, 한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 소개 및 통합형 공공시설물 '미디어폴' 소개

봉은사 일대
봉은사 ➔ 신사동 가로수길 ➔ 청담동 패션거리
이국적인 불교문화 체험 및 울창한 가수로길 사이의 도심 패션거리 체험

● 추천 코스

서울디자인창작지원센터
창작센터 개별 스튜디오, 상설전시장, 공동작업 공간

창작공간 체험투어
신당창작아케이드, 성북예술창작센터

서울성곽 남산투어
남산국립극장, 남산타워, 봉수대, 백범광장

첨단 교통 시스템
TOPIS센터 강당, 시설 견학

조영철 기자



동아DB



서울 G20 정상회의 하루 전 열린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에는 34개국 1백20명의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가했다.

숫자로 보는 서울 G20 정상회의

비(非)G7 국가로는 처음,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대한민국 국격(國格)을 드높인 이번 정상회의의 다양한 성과와 그 내용들을 숫자로 되돌아봤다.

3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여성 정상은 모두 3명.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그 주인공이다. 메르켈 총리는 여성 특유의 지도력으로 독일 번영을 이뤄 한반도의 모델이 됐다는 점을 인정받아 11월 11일 이화여대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5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D.C.를 시작으로 영국 런던, 미국 피츠버그, 캐나다 토론토를 거쳐 이번 5번째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내년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은 프랑스이며, 내후년도는 멕시코로 정해졌다.

9 균형성장,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도상국 개발 등 5개 핵심 의제와 무역 및 투자, 에너지·반부패 등 2개 의제를 바탕으로 회의를 마친 결과 G20 정상들은 정상 선언문의 본문, 3개 부속서, 1개 첨부 문서에 합의했다.

의제별 주요 합의 내용은 총 9가지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금융규제 개혁 ▲무역 ▲개발 ▲에너지·기후변화·반부패 ▲금융소외계층 포용 ▲비즈니스 서밋 등이다.

12 서울 G20 정상회의에는 G20 정상과 스페인, 싱가포르 등 5개 초청국 정상, 유엔, 국제노동기구(ILO) 등 7개 국제기구의 수장까지 33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와 더불어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배우자들도 방한했다. 이들은 모두 12명.

김윤옥 여사의 주도로 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의 맛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준비된 한식 오찬, 창덕궁 한복 패션쇼, 한국가구박물관 관람 등 배우자 프로그램에 함께했다. 김윤옥 여사는 최근 펴낸 〈김윤옥의 한식 이야기〉를 배우자들에게 선물했다.

14 서울 G20 정상회의 첫날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날 G20 정상회의 참가 정상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대표 문화재는 총 14건.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정상회의를 위해 25만여 점의 소장품 가운데 박물관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선정해 전시했다. 빗살무늬토기, 간돌칼

연합





서울 G20 정상회의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 총 7만3천명이 구슬땀을 흘렸다(가운데). 김윤옥 여사는 정상들의 배우자 12명과 창덕궁에서 한복 패션쇼를 함께 관람했다.

(마제석검), 백제금동대향로, 기마인물형 토기, 금동반가사유상, 감은사터 동탑 사리기 등 12건이 으뜸홀에 특별 전시됐고, 오리모양 토기, 신라금관과 금관 장식은 만찬장인 특별전시실에 전시됐다.

24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파급효과는 현대차 쏘나타 1백만 대,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1백65척을 만들어 수출한 것과 동일하다. 또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의 2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66 서울 G20 정상회의와 더불어 하루 먼저 열린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에서 34개국 1백20명의 글로벌 CEO들이 4개월간에 걸쳐 내놓은 66개 권고안이 확정됐다.

권고안은 ▲자유무역 및 해외투자 활성화 ▲금융건전성 제고 및 실물경제 지원 강화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됐고, G20 정상회의 때 제출돼 의제에 수렴됐다.

85 사실 G20 참가국은 유엔 회원국 1백82개국의 10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제 규모로 따지면 전 세계 국가 국내총생산(GDP) 중 85퍼센트를 차지한다. 교역량은 80퍼센트에 달한다. 또 전 세계 인구 중 3분의 2가 이들 20개 나라의 국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G20 참가국은 전 세계 경제에서 대표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96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모인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은 지구촌 최대 비즈니스 무대로 기록됐다.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한 1백20개 기업 간 만남이 활발히 이뤄져 무려 96건의 1 대 1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원 개발, 차세대 에너지, 정보기술(IT) 등에서 기업 간 합작·제휴 발표 등 굵직한 거래가 성사됐다.

334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 한강, 청계천 등을 둘러볼 수 있는 프레스 투어는 38개국 3백34명의 언론인이 참가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매일 2, 3회 열린 이번 행사는 4시간짜리 테마코스와 2시간짜리 회의장 인근 코스, 기타 코스 등으로 구성됐다.

4,288 역대 G20 정상회의 사상 최대 규모인 63개국 4천2백88명의 언론인이 등록했다. 이 같은 규모는 피츠버그 회의(2천5백명 등록), 토론토 회의(3천1백명 등록)보다 훨씬 크다.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의 취재진 인원은 7백명으로 추산됐다.

73,000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준비해왔던 사람들의 수다. 경비를 맡은 경찰 5만명과 군 1만명, 행사 준비인력 7천명, 자원봉사자 6천명이 첫날 업무 만찬을 시작으로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 G20 정상회의를 위해 구슬땀을 쏟아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를 취재한 외신기자들은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합의 진전됐다"

외신, 경상수지 수치 목표 제시되지 않은 점 아쉬워

외신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합의가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로 합의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G20 정상들이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환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G20 정상회의가 끝난 11월 12일 외신들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를 일정 수준에서 억제하는 수치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환율 갈등과 같은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합의가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G20 공동선언은 환율 등 주요 쟁점 해결에는 실패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대화와 관심을 지속하는 태도이며 공동선언문에서 이 같은 관심과 호의를 찾아볼 수 있다"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실상 자본통제 조치를 의미하는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또 "서울 개발 컨센서스 채택은 빈국과 부국의 신뢰를 싹틔울 수 있는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AFP통신〉, "이명박 대통령 외교력 발휘됐다" 극찬

〈BBC〉방송은 "G20 정상들이 서울에서 힘든 협상을 벌인 끝에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점에 주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내년 상반기 글로벌 불균형의 정도를 확인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또 "서울 G20 정상회의가 위안화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결의 장에서 벗어나 G20 회원국들에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천 틀(Workable Framework)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AFP통신〉 등 프랑스 언론들도 정부의 경쟁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무게를 뒀다. 또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효율성을 잘 보여준 회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력이 발휘됐다"고 극찬했다고 전했다.

〈AP통신〉,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보여준 회의" 평가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 의제를 제시해 워싱턴 컨센서스와 구분되는 서울 컨센서스와 다년간의 행동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은 이번 G20 정상회의를 개최해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외신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특징으로 중국의 부상을 꼽았다. 〈AFP통신〉은 "G20 정상들이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이 추진했던 대책에는 훨씬 못 미친다"며 "이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을 옹호하다가 독일, 브라질은 물론 영국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았다"며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분명히 보여준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반영하듯 중국 언론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G20가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기로

외신기자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동아DB

조영철 기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도 "G20 정상들이 다양한 문제해결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11월 13일 중국의 마자오쉬 외교부 대변인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의 단결된 노력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을 수행하고 대변해온 마 대변인은 모든 참가국이 G20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면서 세계경제의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국제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로 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NHK〉는 "서울선언이 각국이 통화 평가절하 경쟁을 회피할 것을 정상 수준에서 확인했으나 초점이 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 적자 폭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세계경제의 중심이 미국, 일본에서 미국,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총론에서는 G20가 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1천6백여 명의 외신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벌였다. 이들은 G20 정상회의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성장과 문화 등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파이낸셜타임스〉, 한국 특집판 내고 첨단산업 등 소개

〈파이낸셜타임스〉는 11월 11일 'G20와 한국'이라는 특집판을 내고 한국의 경제, 분단상황, 첨단산업, 부동산, '디자인 서울'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데이비드 필링 아시아 담당 편집인은 특집판 사설을 통해 "한국이 구세력과 신흥국 사이의 자연스러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에 의해 아직도 신흥시장으로 분류되는 한국은 이제 막 세계 서열에서 변화를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11월 10일 '한국이 G20의 불꽃으로 타오르다'라는 제목의 1면 톱기사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뿐 아니라 30개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처음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11월 10일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도 "한국은 세계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는 정상회의에 참여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됐다"며 "국가적 자긍심을 시민, 기업, 정부 관계자 모두에게서 느낄 수 있다"고 보도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경제 선진국 넘어 문화 선진국으로"

서울광장서 C&C20 전통공예문화대전

한국 여인의 전통고전머리(가채)와 시대별 복식, 닥종이 인형, 나전칠기, 도자기…. 서울 G20 정상회의를 맞아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Craft&Culture(이하 C&C)20 전통공예문화대전'이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C&C20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경제 선진국을 넘어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옻칠공예, 섬유공예, 도자공예 등 한국의 전통공예는 물론 한식, 차(茶) 등 전통적인 먹을거리도 함께 전시됐다.

김치 종주국답게 김치재료관을 따로 열어 G20 정상들을 위한 명품김치 20선도 선보였다. 이곳에서는 전통김치를 직접 만들거나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각 분야별 무형문화재 장인들과 청와대 사랑채에서 전통공예 제작 과정을 선보이는 작가들의 시연도 눈길을 끌었다.

하종철(62) C&C20 조직위원장은 "G20 정상회의로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된 만큼, 이번 행사가 한국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우리의 문화 이미지를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목공예 부문 신정철 장인이 20년 된 소나무로 장승을 만드는 시연을 하고 있다.

1



2

3


4


1 김갑용 장인이 녹청자를 고령토로 빚고 있다.
2 G20 정상회의 참가국 국기가 새겨진 청사초롱을 들고 있는 닥종이 인형.
3 신랑 신부 등을 형상화한 박 공예품.
4 나전칠기 부문 장준철 장인이 가늘고 긴 전복 껍데기를 가구 위에 끊어 붙이고 있다.
5 느티나무로 만든 의자에 인두로 그림과 글자를 새겨넣은 인두 공예품.



5

동아DB



동아DB





금강 부여보, 낙동강 칠곡보, 금강 금남보, 한강 이포보(1~4번 순)의 모습을 보세요. 대운하의 전형인 파나마 운하(5번)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파나마 운하는 대형 화물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수위 차 극복을 위한 거대한 갑문이 있으나 4대강의 보들은 갑문이 없을 뿐더러 갑문을 새로 만들어 붙일 곳도 없습니다.

홍수 막고 병든 강 되살리고자 합니다 땅 파내 화물선 운항하는 대운하 아닙니다

절반 가까이 진행된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여전히 '대운하'라는 주장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4대강의 16개 보(洑) 공정은 절반 이상 진행됐습니다.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홍수를 막고 '커다란 물그릇'을 만들며 퇴적물을 걷어내 병든 강을 되살리고자 하는 종합적인 생명살리기가 4대강살리기 사업입니다. 마른 땅을 파내어 화물선을 운항케 하는 파나마나 수에즈 운하 같은 대운하가 아닙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대운하가 아닌 10가지 이유,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로부터 들어봤습니다.


3



5

동아DB

1 4대강살리기 사업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과 대운하 사업 목적과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홍수 방어와 물 확보, 수질 개선 등을 위한 종합 사업이지만, 대운하는 수에즈 · 파나마 운하처럼 물이 없는 '생땅'을 파내 수로를 만들어 대형 화물선을 운항시키는 사업입니다.

대운하 사업의 핵심은 경부축의 물동량 수송을 위한 한강과 낙동강의 연결이었으나 지금 4대강살리기 사업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수로, 하천에 손질을 하여 만든 인공수로도 운하라고 부른다'는 사전적 정의(定意)도 있지만 흔히 '운하'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육지를 파서 만든 대운하입니다. 지금도 한강에 유람선이 다니지만 한강을 '운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화물선이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수위 차 극복 · 화물선 운항용 갑문이 없습니다

대운하 사업에서는 주운(舟運)용 보(洑) 설치와 함께 화물선이 상 · 하류 수위 차를 극복하고 운항하기 위한 갑문시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의 가동문을 떼어내면 갑문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지금의 보는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 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선박 운항을 위한 갑문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3 화물 하역을 위한 터미널도 없습니다

물류가 주목적인 대운하 사업에서는 선박이 접안하고 화물을 하역하기 위한 부두와 부대시설 등을 갖춘 터미널을 설치해야 합니다. 터미널 이외에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기 위한 진입도로 등 연계교통망의 확충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4대강살리기 사업에는 이러한 화물 운송용 터미널이나 연계교통망 계획이 없습니다.

4 수심 6미터가 넘는 구간이 4대강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확보되는 최소 수심은 2.5~6미터입니다. 대운하 사업에서는 대형 화물선 운항을 위해 상류에서 하류까지 일정 수심(최소 6.1미터)을 확보해야 하지만 4대강 전체 구간(1천3백62.8킬로미터) 중 6미터 이상 수심은 전체 구간의 4분의 1인 26.5퍼센트(3백61.2킬로미터)뿐입니다. 즉 4대강살리기 사업 구간의 4분의 3 정도는 수심이 6미터가 되지 않아 대형 화물선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일부에서 "단독으로 운하가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낙동강의 경우도 6미터 이상 구간은 전체 구간의 61퍼센트에 불과합니다.

5 강을 직선화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유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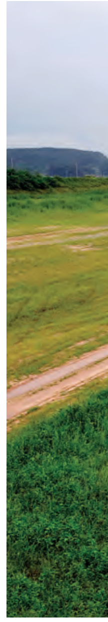
파나마 운하의 수로변은 깎아놓은 듯 반듯합니다. 대운하는 화물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수로를 직선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대강살리기 사업은 현재의 자연하천 수로 선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생명살리기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6 생태하천으로 정비돼 강의 폭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때로는 커다란 강 가운데 자리 잡은



낙동강 하류 지역의 4대강살리기 사업 도면입니다.
하천 폭이 일정하지 않고 구불구불한 수로가 확연합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과 대운하의 차이점

구분		4대강살리기 사업	대운하
준설	목적	홍수 소통공간 및 물 확보를 위한 저수공간 확보	화물선 운항을 위한 주운(舟運)수심 확보
	굴착	둔치와 저수로 굴착	저수로 굴착 (대규모 저수로 준설이 필요해 토사처리 최소화를 위해 둔치까지 준설하는 것은 불가능)
	저수로	선형은 자연하천 형상 유지, 폭도 일정하지 않음	화물선 통행 위해 선형 직선화, 폭도 전 구간 200~300m로 일정
보	목적	수량 확보, 수변경관 조성, 레저·관광 등	주운수심 확보를 위한 수위 유지
	규모	높이 15m 이하 (중소 규모)	높이 20m 내외 (대규모)
	간격	수량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 확보 (낙동강의 경우 중규모 보 8개 설치)	물류 이동시간 감축을 위해 갑문 통과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설치간격 기준 (낙동강의 경우 대운하 사업 시 대규모 보 6개 설치)
	갑문	없음	있음
확보 수심		구간별로 확보 수심이 다름 (낙동강의 경우 칠곡보 아래 하류 쪽은 6m 이상이나 칠곡보 위쪽 상류 쪽은 2~4m 수심으로 화물선 통행 불가능)	전 구간 최소 6.1m 이상 필수
교량 개축		불필요 (다만 준설 이후 기초보강이 필요한 곳만 개수)	신설 필요 (화물선 통행을 위해 높이와 폭이 미흡한 교량은 대체 필요. 대운하 사업 시 약 70여 개의 교량 개축 필요)





4대강살리기 사업이 끝난 경기 여주군의 한강변과 세종시 구간의 금강 하류지역입니다. 직선 수로에 수심이 깊은 대운하와 달리 수변도 삐뚤빼뚤, 수심도 들쭉날쭉 자연형 하천 그대로입니다.

하중도까지 4대강의 폭은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고 구간별로 다릅니다. 자연적인 하천의 형상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운하 사업은 다릅니다. 상류부터 하류까지 일정한 수로 폭(최소 2백~3백 미터)을 유지해야 합니다.

7 기존 교량을 철거하지 않습니다

대운하 사업에서는 화물선이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와 교각 폭을 확보하지 못한 교량은 철거하거나 개량해야 합니다.

화물선이 통과하기에 교량 높이 및 교량 폭이 부족한 교량은 ▲낙동강 64개소 중 54개소 ▲한강 53개소 중 21개소입니다. 하지만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는 강바닥 준설 이후 필요한 곳의 안전성 보강 이외에는 교량 철거 혹은 교각 폭이나 높이 개량 계획이 없습니다.

8 대운하를 염두에 둔 '전 단계'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대운하의 전 단계 사업이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일부의 주장처럼 가동보 수문을 떼어내고 갑문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성, 경제성 측면 등에서 불리합니다.

또한 화물선 운항을 위한 터미널, 수로 직선화, 수심, 교량 여건 등 등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실상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4대강살리기 사업 공정이 절반에 이른 현 시점에서 대운하 사업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 '대구·구미 항구도시' 주장은 영어 번역상 오해입니다

지난해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발간한 '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일부에서 "정부가 대구와 구미를 항구산업 대상 도시로 선정한 것은 4대강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영어 표기를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오해를 부른 '항구산업'이란 용어는 해당 용어의 영어 표기(Port and Industrial Complex)와 같이 '항구도시 및 산업도시'를 합쳐 부른 말입니다.

보고서에서도 "항구산업 구간은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항구 구간과 대형 산업단지가 통과하는 하천 구간'"(83쪽)이라고 설명돼 있으며, "구미와 대구(달성군) 지역은 P 산업단지, 부산은 P 항구도시"로 표기(11쪽)돼 있습니다. 보고서 어디에도 '대구를 항구도시로 만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10 이명박 대통령도 4대강살리기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수차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9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 이어 같은 해 11월 27일 MBC TV에서 방송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임기 내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생방송을 통해 대운하 사업을 염려하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지켜보아야 할 때입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심으로 그린 '되살아난' 낙동강

'낙동강과 함께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

지난 10월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4대강살리기 사업 중 전국 최초로 준공한 부산 화명생태공원에서 개최한 '낙동강과 함께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의 수상작이 11월 12일 발표됐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된 이번 대회에는 총 5백34점이 최종 접수됐으며, 미술 및 환경 분야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2백95점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이 중 대상에 해당하는 환경부 장관상에는 김해여고 1학년 정도연 양 외 5명이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인 윤형근 한국미술협회 이사는 심사평을 통해 "이번 대회는 4대강살리기 사업 중 최초로 조성된 생태공원에서 그 성과를 함께 누리는 행사를 개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버려진 낙동강 둔치에서 아름답게 되살아난 화명생태공원을 잘 표현한 작품이 다수 출품됐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앞으로 환경부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G

글 · 이윤진 기자

1


2


1. 박소영(진해 석동초교 1년), 〈미래의 화명생태공원〉
   초등부 저학년 환경부 장관상
2. 최유진(김해 대청초교 4년), 〈행복한 공원〉
   초등부 고학년 환경부 장관상
3. 김해미(부산 사직중 2년), 〈자연이 숨쉬는 휴식공간〉
   중등부 환경부 장관상
4. 홍유정(부산 사직중 2년), 〈물과 풀의 합주〉
   중등부 환경부 장관상
5. 이정은(부산 영상예술고 2년), 〈흘러가는 낙동강〉
   고등부 환경부 장관상
6. 정도연(김해 김해여고 1년), 〈가을에 빠진 생태공원〉
   고등부 환경부 장관상

3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4



5



6



■ **참가 학생 소감문**

"내년 봄엔 화명생태공원에도 제비꽃·민들레가 피겠지?"

#1 지난 주말에 낙동강살리기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낙동강은 4대강 중의 하나로 부산은 낙동강 하류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다. 낙동강에는 꼬막과 같은 조개류와 물고기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쓰레기와 생활하수를 많이 버려서 물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낙동강을 살리는 캠페인과 강을 새롭게 정비하는 활동을 통해 낙동강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그림을 그린 이곳은 화명생태공원이다. 낙동강이 새롭게 바뀐 첫 번째 공원이다. 넓은 들판에 다양한 식물들이 심어져 있었고, 왼쪽엔 오색 연들이 줄지어 날고 오른쪽엔 기차가 달리고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자연 체험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도 낙동강의 되살아난 모습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비록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낙동강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다. 그림을 다 그린 뒤에는 앞으로 이런 곳이 많이 생겨 우리들이 뛰어놀고 환경에 대해 공부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김윤환(부산 사하초교 4학년 3반)**

#2 '낙동강과 함께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리는 화명생태공원의 위치를 알기 위해 컴퓨터로 찾아보았다. 화명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 그곳의 모습은 질서 없이 세워진 비닐하우스 주변으로 온갖 쓰레기들이 모여 있었다.

조금 실망한 채로 출발했는데 막상 우리가 생태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버지께서 차를 주차하는 순간부터 벌써 기분이 좋아졌다. 주차장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귀여운 모양의 블록 사이로 풀들이 자라나 있어 마치 징검다리 같았다.

나는 주차장 바닥에 깔린 블록을 하나 둘 세어가며 뛰어다녔다. 그림 그리기 대회장에 도착해서 간단한 기념식을 마치고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였다. 낙동강이 보이는 이곳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원까지 있는 것이 무척 좋았다. 그림 그리기를 마치고 마술쇼 등 체험 행사에 참가하고 화명생태공원에서 가을 날씨를 느끼면서 가족과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화명생태공원의 봄에는 제비꽃도 있고 민들레도 있겠지? 그래서 이 공원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금세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내년 봄 공원의 모습이 무척 기대된다. **이수진(창원 신월초교 4학년 5반)**

배려의 마음으로 나누는 삶의 향기

교육·문화사업 지원 등 소외계층 어린이에게 꿈 전달

나눔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배움과 재능을 전파하는 데도 기업들이 적극 앞장서고 있다. 난치병에 걸린 어린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 나눔의 방식은 일방적이지 않고 철저히 받는 사람을 배려한다. 이는 단순한 나눔을 뛰어넘어 삶의 향기를 나누는 것이다.

CJ | '꿈 키움' 프로그램 '도너스 캠프'로 꿈 키워요

지난 9월 18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 지역 공부방 고등학생 70명이 찾았다. 'CJ 도너스 캠프'가 올해 8월부터 4주간 실시한 '꿈 키움'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인 이날, CJ그룹과 각 계열사 인사 담당자 10여 명이 공부방 학생들이 막연하게 갖고 있는 직업관을 구체화하고 실제 면접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등을 조언해주는 자리였다.

CJ 도너스 캠프는 '꿈 키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이 뭔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이를 위해 올해 여름방학부터 약 1천여 명의 학생에게 CJ엔터테인먼트 공연기획자, CJ헬로비전 아나운서, CJ푸드빌 셰프 등 CJ그룹 내 전문직 종사자들이 학생들에게 직업 멘터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CJ나눔재단이 운영하는 CJ 도너스 캠프는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펴는 온라인 기부 프로



CJ 임직원들의 봉사단체인 'CJ 도너스 캠프' 회원들이 지역 공부방 어린이들과 쿠키를 만들고 있다.

그램이다. 2005년부터 6년째 운영 중인 이 캠프는 주로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공부방을 후원해왔다. 교육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고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인재를 키우고 나라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소외계층에 꿈 이룰 수 있도록 교육기회 제공

CJ 도너스 캠프의 특징 중 하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칭 그랜트 방식은 한 명의 개인 기부자가 1천원을 내면 CJ나눔재단이 1천원을 추가로 기부해 사랑을 2배로 키우는 것이다. 동시에 개인 기부자가 온라인을 통해 직접 기부처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CJ 측은 "CJ 도너스 캠프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올해 7월 현재 전국 2천1백여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를 후원하고 있으며, 16만여 명의 일반인 기부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 · 홍원상(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롯데백화점 LOTTE DEPARTMENT STORE | 1:1 자매결연 등 글로벌 사회공헌에 적극

롯데백화점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유통업계 최초로 베트남에 '제1롯데스쿨'을 열었고, 최빈국 어린이 지원사업도 벌이고 있다. 제1롯데스쿨 건립 기금은 2008년 4월 사진작가 김중만 씨의 '에비뉴엘 고객 사진전'에서부터 시작해 같은 해 12월 '모엣 샹동 자선 샴페인 패키지 판매'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으로 마련했다.

롯데백화점은 베트남에 '제2롯데스쿨' 건립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수도 하노이 인근의 박장(Bac Giang)주 탐디(Tam Di)마을에 있는 초등학교가 그 대상으로, 낡은 학교 건물 옆 부지에 별도로 2층 건물을 신축해 3개인 교실을 8개로 늘리고 운동장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학교시설 지원 등 최빈국 어린이 지원사업 벌여

6·25전쟁 발발 60년을 맞은 올해 7월, 롯데백화점은 6·25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에 '롯데드림센터'를 착공했다. 미국, 터키, 필리핀 등 16개 참전국 중 최빈국인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3천5백18명의 군인을 파견해 1백21명이 목숨을 잃은 혈맹(血盟)이다.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약 1천명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빈민층으로, 그 가족들은 생계형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취학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이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에티오피아 긴짜 지역에 착공한 롯데드림센터에서 현지 빈민층 아이들이 선물을 한 아름 받고 기뻐하고 있다.

롯데드림센터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1백 킬로미터 떨어진 산간지방인 긴찌 지역에 들어서며, 총 4백63제곱미터(약 1백50평) 부지에 교육관, 생활관, 기숙사로 구성된다. 이는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장으로 이용되고, 특히 기숙사는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 운영된다. 방과 후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의료시설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5월부터 해외 빈곤 어린이들과 롯데 직원이 1 대 1로 자매결연을 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비정

부기구(NGO)인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방글라데시, 케냐 같은 극빈국과 몽골, 캄보디아 같은 환경재해국, 그리고 베트남, 인도 등지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

이들 지역 어린이에게 롯데 직원이 월 1만5천원을 기부하면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회사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해 월 3만원의 지원금이 어린이에게 전달된다. 어린이들과 편지도 교환한다. 현재 5백명의 직원이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글 · 김덕한(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Enjoy the Quality 남양유업

특수질환 환아 위한 특수분유 개발 · 보급

국내 분유시장의 약 60퍼센트를 점유하며 반세기 동안 1위를 달리고 있는 남양유업은 특수질환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수분유를 개발해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들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만큼, 그늘에 가려진 아기들을 위해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환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내에는 특수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기들이 많지만 특수분유의 개발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수익성을 거의 기대할 수 없어 일반 기업들은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수질환을 앓는 소수의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테스트를 해야 하는 등 각종 어려움도 따른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특수분유의 보급을 사회봉사 슬로건으로 삼고 소수의 아기들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인 GMP 수준의 제조시스템을 갖추는 등 최상의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최근 난치성 소아간질 치료를 위해 케톤생성식이요법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인제대 김동욱 교수, 연세대 김흥동 교수 등과 함께 공동 개발한 특수분유 '케토니아'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딱딱한 음식 섭취가 어려운 영 · 유아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으며 항간질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허 출원한 제품으로, 최근 세계적인 여러 학술대회에서도 '케토니아' 사례가 수차례 발표되는 등 세계적인 연구 및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저소득 어린이 환자에게 '케토니아' 등 특수분유 제공

남양유업은 부모의 생활고로 치료가 어려운 어린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케토니아 등 특수분유를 무료로 제공하며 나눔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저체중아나 미숙아를 위한 '미숙아분유,' 알레르기성 질환 등으로 고통 받는 아기들을 위한 '호프알레기', '호프닥터'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특수분유를 개발해 저가로 보급하고 있다.

남양유업 김웅 대표는 "앞으로도 특수분유 개발에 앞장서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기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 최보윤(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남양유업



남양유업 중앙연구소는 특수분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동서식품



동서식품 직원들이 '사랑의 연탄 나르기' 행사에 참여하기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동서식품 | 문화 나눔활동으로 삶의 향기 나눠

1968년 설립된 국내 대표 커피 회사인 동서식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주력 제품군인 커피와 어울리는 문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클래식 음악, 문학, 바둑 등의 활동을 연계해나감으로써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근한 문화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성들의 문학작품을 발굴하는 '동서 커피문학상'과 유명인사와 소비자들 간의 교류 창구를 마련해주는 '동서 커피 클래식' 등의 문화사업은 물론 각종 장학·후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음악·문학·바둑 등 문화사업에 장학·후원사업 펼쳐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맥심 사랑의 향기'는 나눔이 필요한 곳에 문화자산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미국 카네기홀 공연으로 화제를 모은 부산 소년의 집 '알로이시오 관현악단'을 지원했다.

올해는 국내 유일의 면단위 관악오케스트라인 경남 산청군 신안초등학교의 '신안 윈드오케스트라'를 지원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대전지역 저소득가정 청소년들로 이뤄진 태화오케스트라단을 후원하는 한편 첼리스트 정명화 교수와 함께하는 마스터 클래스를 마련해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희망을 선사했다.

장학사업에도 열심이다. 동서식품장학회는 1993년부터 경제사정이 어려운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고교생과 대학생 1천4백73명에게 20억4천9백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러시아 등 극동지역 해외동포들에게는 4천만원 상당의 교육 기자재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장학생 1백41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총 3억1천4백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이 참여하는 '사랑의 연탄 나르기', 산과 하천을 가꾸는 '환경정화운동', '급식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서식품 안경호 홍보실장은 "지속적이며 다양한 문화 나눔활동을 통해 소비자들과 삶의 향기를 나누는 따뜻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

글 · 최보윤(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삶에 희망 주는 '행복 충전 복지관광'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무료 여행 기회 제공

복지관광은 취약계층의 장애인, 노인,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짧은 여정이지만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 평생 기억에 남을 감동과 삶의 희망을 새겼다고 참가자들은 말한다. 단순히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세상과 연결하는 징검다리인 셈이다.

#1 유난했던 올여름 더위는 저희처럼 없는 사람들을 더 힘들고 지치게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더운 바람만 나오는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며 남들 다 가는 물놀이 한번 가지 못해 아이는 원망 섞인 말을 했고 무능한 부모로서 좌절과 무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복지관을 통해 '우리 가족 행복충전'이라는 1박2일 캠프를 가게 됐습니다. 교통과 숙박, 음식을 모두 제공받아 아무 불편 없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관령 양떼목장에서 난생처음 치즈도 만들고 양들에게 먹이도 주고 아이와 손을 잡고 꿈을 꾸듯 걸어보았습니다. 설악산 권금성에서 케이블카를 탔던 환희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펜션에서의 바비큐, 대전의 천문대에서 망원경으로 보았던 목성…. 이번 여행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이에게 미안하고 아쉬웠던 마음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소원했던 관계가 풀어지며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사임당이 율곡선생을 길렀듯이 우리 아들을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_ 고연희(대전 서구 월평2동)

#2 저 같은 장애인들에게 가을 여행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마지못해 산다고 생각해왔는데 저 자신을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지낸 1박2일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삼척 박물관에서 몇 만 년 동안 흘러내리는 종유석을 보고 영화도 봤습니다. 정동진 호텔에 묵으면서 그림처럼 아름다운 일출을 보았을 땐 꿈만 같았습니다. 호텔이나 민박에서 한번 자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 소원이 이뤄져 정말 기쁩니다.

월정사에 들러 우리나라의 소중한 멋과 정취를 느꼈습니다. 대웅전에서 소원도 빌었습니다. 탑돌이를 하면서 바라본 가을 단풍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허브농장에서 자연의 향기에 취하고 꽃도 먹어보고….

제 인생이 이렇게 꿈만 같고 기쁠 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늘 움츠러들어 살았는데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_ 박선휘(충북 단양군 단양읍)

복지관광을 다녀온 사람들의 체험기에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것을 경험한 기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관광이 단순한 여가활동만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복지관광은 취약계층에게 작은 행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관광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그리고 다문화가족 등으로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여행을 하기가 어려운 이들이다.

복지관·복지시설 통해 신청… 1인당 최고 15만원 지원

복지관광을 주관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우리 국민의 국내 여행 경험률은 92.3퍼센트에 이르지만 복지관광 대상자 5백63명 중 69.4퍼센트인 3백91명은 숙박여행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55.3퍼센트인 3백11명은 당일여행 경험조차 없었다. 이들에게 관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것이 복지관광이다.

복지관광은 복지관과 복지시설을 통해 신청을 받아 국내 단체관광을 하는 것으로, 1인당 최고 15만원까지 여행 경비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가족 사랑과 화합을 일깨우는 프로그램도 복지관광 행사 중 하나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미술 작품을 만들고 있다.



복지관광을 통해 서울 나들이를 온 어린이들. 지난 8월 광주광역시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들은 창덕궁을 둘러보고 뮤지컬 〈어린이 캐츠〉를 관람한 후 용인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해 4천7백46명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8억원의 예산으로 5천3백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관광은 기본적으로 복지관 등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지난해부터는 개별신청 형태의 특별행사도 벌이고 있다. 설이나 추석 명절 전후, 가을철 등에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가족여행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복지관광 외에도 여행바우처 사업이 있다. 여행바우처는 여행 경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개별여행이라는 점에서 복지관광과 다르다. 또 여행바우처는 월소득 2백12만5천원 이하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복지관광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내년에는 복지관광과 여행바우처 사업이 여행누림사업(가칭)으로 통합되면서 크게 확대된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혜 대상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다. 수혜계층을 차상위계층 이하로 일원화해 여기에 속한 개인이 각자의 선호에 따라 복지시설을 통한 단체여행이나 개별여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산은 올해 복지관광 8억원, 여행바우처 8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합해서 4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자도 올해 복지관광 5천3백여명, 여행바우처 6천여 명에서 모두 4만4천8백8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은 기존의 여행바우처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여행상품을 선택해 결제하면 된다.

복지관광·여행바우처 통합… 내년 예산 48억원으로 증액

그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러 가지 문제는 그들이 우리 사회 대다수에게 열려 있는 기회에서 배제되는 데서 발생한다.

따라서 복지관광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김재걸 국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관광활동에 대한 소외는 다양한 관계로부터의 단절과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소외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관광의 향유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이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라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조영철 기자

"모든 종교의 시작은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장로 동생… 수녀 조카… 종교 화합 실천하는 부산 정각스님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종교계의 노력이 활발한 가운데 폐쇄적인 종교관을 스스로 극복한 종교인 가족이 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인 정각(正覺)스님 (77·일붕선교종 미룡사 주지) 가족이 그 주인공. 정각스님은 물론 각기 다른 종교에 몸담고 있는 동생, 조카는 종교 간 소통과 상생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대구지역 목사님 5명을 만났습니다. 종교가 바로 서고 화합해야 국가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른바 국가브랜드의 향상과도 직결되는 일이죠. 종교 간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다른 종교인들을 자주 만나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자위(自慰)하곤 합니다."

희수(喜壽)의 연세임에도 정각스님의 목소리는 굵고 단호했다. "이제는 내 기도를 해야 하는데, 내 수양을 해야 하는데…"라면서도 종교 간 엇박자가 나는 뉴스를 접할 때면 그 생각을 잊어버린다고 한다.

군 제대 후 고시 공부를 하던 중 불교에 입문해 출가 40년이 훌쩍 넘도록 스님은 종교계 화합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왔다. 필요하면 교회에 가고, 천주교 신부들과도 손잡고 대화를 나누는 일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1980년대 말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불심으로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고 했죠. 당시엔 스님이 교회에서, 그것도 높은 연단에서 강연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종교 간 경계를 허문 정각스님에겐 '부처님 오신 날'이나 '크리스마스'나 똑같은 축복의 날이다. 특히 예수 탄생일 전날인 12월 24일엔 꼭 부산지역 각 교회를 돌며 축하 법문을 한다.

법문을 낭독하기 전 "이 땅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종교와 관계없이 기뻐하며, 열린 마음으로 값진 예수 탄생일이 되길 바란다"고 하는 말은 스님의 진심 어린 단골 멘트라고 한다.

종교에 대한 정각스님의 신조는 '열린 마음, 열린 종교'다. 스님은 "각 종교가 내세우는 교리는 자비, 사랑, 박애, 인내 등이다. 내 종교만 소중하고 다른 종교를 배척할 이유가 없지 않

동아DB



'열린 마음, 열린 종교'를 신조로 종교 간 소통을 시도하는 정각스님. 지난 5월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 날에도 종파를 떠나 천주교 신부, 기독교 목사들과 함께 법요식을 봉행했다.

느냐"며 "믿음 자체가 찬양받는 것"이라고 했다.

열린 종교 실천을 위해 스님이 행동의 바탕으로 내세우는 건 원효대사의 화쟁(和諍)사상이다. 한국 불교의 전통 사상으로 화해와 회통을 근간으로 하는 논리체계다.

"화쟁사상은 비단 불교계에만 국한된 이론은 아닙니다. 화쟁사상의 목적은 결국 '다툼을 화해시킨다'는 것이죠. 종교 간의 소소한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싸워도 모두 모여 함께 싸워야죠. 그래야 종교 간에 신뢰가 돈독해지고 융화하는 방법이 생겨납니다."

화쟁사상, 종교·사회·국가 간 분쟁 등에 통용될 수 있어

정각스님이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을 실천하는 데엔 가족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그의 몇몇 가족은 기독교, 천주교 성직자와 신자다. 종교 간 화합이 가족 내에서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스님은 "여러 종교를 갖고 있는 동생과 조카들은 분명 내 종교적 소신을 지키는 힘"이라고 자랑스러워했다.

내력을 보면, 사촌동생이 경북 고령군 벌지교회의 김중건 장로다. 김 장로는 벌지교회를 직접 세웠다. 5촌 조카는 경남 하동군 쌍계사 주지스님을 지낸 원정스님(현 경남 남해군 보리암 주지)이다. 친누나의 둘째 아들은 태고종 지현스님이다.

한 살 아래 또 다른 5촌 조카 역시 경북대 의대 학장과 대한의사협회 이사를 지낸 김재식 경북대 명예교수로 대구 서문교회 장로다. 또한 사촌누나의 딸은 대구 삼덕성당 황 스텔라 수녀다. 그야말로 여러 종교가 끈끈한 가족관계로 얽혀 있는 셈이다.

정각스님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포용과 이해심이 남다르게 커졌다고 말한다.

"종교의 시작은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시골에서 농사짓는 평범한 김 장로는 가끔 법정스님, 춘성스님의 책을 빌려가 열독했지요. 스텔라 조카도 불교 등 다른 종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작은 노력이 가족으로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가족끼리 서로의 종교를 이해한다지만 그래도 막상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색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 정각스님이 아닌 동생에게 물었다. 김 장로는 인정은 하면서도 갈등이 아닌 차이일 뿐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스스로가 좋아서 믿는 종교인데 이 종교가 좋고 저 종교는 나쁘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꺼. 종교의 진리는 분명 하납니더. 하지만 종교마다 구원의 문제, 심판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예. 거기서 형님 등과도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종교가 존재하는 의미 전체를 넓게 인식하면 서로 벽을 허물고 먼저 다가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더. 더구나 가족 아닌겨."

정각스님 가족에게서는 이처럼 종교 간 신뢰를 구현하는 '종교적 인간'으로서의 실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종교 간 신뢰와 공존을 바라는 정각스님에게 최근 일련의 종교 간 갈등 소식은 가슴을 저미게 한다.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는데…"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던 정각스님은 오히려 한국 종교의 구조적 장점을 빗대어 향후 종교계의 자성과 그에 따른 긍정적 변화를 기대했다.

"한국에서 다종교가 오래 지속돼온 건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 다행한 일이에요. 이는 성지 순례 때문에 외국에 가면 현지 종교인들에게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들도 그것이 너무나 부럽다고 해요. 종교끼리 화합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내 종교가 소중하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자연히 자기 종교에 대해 감사하고 또 참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인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G

글 · 유재영 기자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송영희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가족캠프 등을 통해 한국인 남편과 시부모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평범한 이웃으로 바라보길"

송영희 전남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결혼이민여성을 특별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이웃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0월 14일 전북 무주군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송영희(46) 전남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한 조언은 의외로 단순했다.

그는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런 시선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해한다"며 "다문화가정을 내 이웃으로 평범하게 바라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센터장은 2005년 4월 이주여성센터 근무를 시작으로 이듬해 4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장을 맡아 지금까지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끌고 있다.

결혼이민여성 교육의 성공은 가족의 믿음 있어야

그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하면서 가족 단위 사업을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통상 다문화가족 지원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송 센터장은 배우자인 한국인 남편과 그 자녀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예를 들면 마을회관에서 외국인 부인을 둔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해 교육하거나 가족 캠프를 열어 부부간 서로 자랑하기, 10년 후 가족 모습 그리기 등을 통해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했다.

그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철학이 필요하다"며 "남편과 시부모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온라인 요리강좌 사이트인 '전남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국어 요리강좌'를 개설하고 있기도 하다. 포스코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후원금으로 설립된 이 사이트는 요리법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일본, 영어 등 5개 외국어로 설명하고 있어 결혼이민여성이 자국어로 한국 요리를 손쉽게 배울 수 있다.

2007년 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다문화가족을 조사하면서 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바로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것이 온라인 요리강좌로 발전했다.

송 센터장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이 결혼 초기 밥상을 차리는 데 1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30분으로 단축됐다고 말하더라"며 "다문화가정 부부가 이 사이트를 같이 보면서 서로에게 자국 언어를 가르쳐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빠듯한 예산과 부족한 인력이라는 고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네트워킹'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소방서와 협조해 결혼이민여성에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경찰서로부터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보건소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센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른 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외부 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

글 · 구정모(연합뉴스 기자)

전남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국어 요리강좌 jn.damunwha.com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G20 의제와 개도국 여성이 만나다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여성 공무원 초청 역량 강화 훈련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지난 10월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의 '개발도상국 여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역량 강화 교육훈련'에 참가한 개도국 여성 공무원들이 숙명여대 숙인당에서 한복을 입고 전통다도예절을 배우고 있다.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은 11월 1일부터 개발도상국의 여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발도상국 여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하나로, 개도국 여성의 경제적 자립 능력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11월 19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훈련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요르단, 몰도바,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9개국 여성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25명이 초청됐다. 이번 교육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어젠다 중 하나인 '개발 의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개발정책·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꾀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개도국에 실질적 혜택 줄 것"

교육 참가자들은 11월 11, 12일 여성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위해 발족한 '새로일하기센터'의 설치 과정과 지원 내용에 대한 강의를 듣고, 우수 운영기관 2곳(경기 용인시 여성능력개발센터, 화성시 여성비전센터)을 방문해 현장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9일에는 우리나라 폴리텍대학 중 유일한 여자대학인 한국폴리텍여대를 찾아 귀금속 공예 등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봤다. 이어 10일에는 여성친화 기업이자 최근 스마트워킹 시스템을 도입한 KT를, 12일에는 올해 3월 남녀 고용평등기업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했다.

마지막 3주차(11월 15~19일)에는 숙명여대 숙인당에서 한복 및 전통다도예절을 체험하고, 서울 금천구에 있는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 구직자를 위한 집단상담, 이미지 컨설팅, 비누공예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배울 예정이다.

박미석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이사장은 "직업교육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형상과 직결되는 만큼 개도국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10월 4~22일 처음 실시된 교육훈련에는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등 10개국에서 29명이 참가했다. 당시 훈련생들은 마이스터고 중 유일한 여학교인 서울 미림여자정보과학고를 방문해 컴퓨터그래픽을 실습하고 한국조리사관학교에서 제과·제빵 과정을 살폈으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다도예절교육을 받음으로써 한국문화를 좀 더 가깝게 느껴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G

글·김지영 기자

"동네 거닐며 건강 챙기세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수도권 조깅·산책 코스 10곳

참살이(웰빙)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걷기'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 걷기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 우리 동네에서는 어디가 걷기에 좋을까. 주말 나들이 코스로도 손색없는 조깅·산책코스 베스트 10을 소개한다.

장자호수공원

자연생태공원에서 산책 즐겨요



한때 오·폐수로 악취가 나던 장자못을 개선해 조성한 장자호수공원. 하천 제방변에 나무들도 많아 2005년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 복원 우수 사례'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약 9천7백여 제곱미터의 넓은 면적을 지닌 산책로에서 가벼운 운동, 나들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말이면 야외무대에서 각종 음악회나 전시회가 열려 휴식공간으로도 널리 이용된다. 하루 이용객이 5천여 명 이상일 정도로 온 가족 나들이 코스로도 인기가 좋다.

산책로 길이 3.6킬로미터 **위치** 경기 구리시 토평동 878

대중교통 서울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9-2, 9-3번 버스를 타고 장자호수공원 하차

두리마을 산책로

가족 나들이·자전거 여행에 제격



자전거를 대여해 산책로를 즐길 수 있고 정자 등 휴식공간이 많아 쉬엄쉬엄 걸으며 산책하기도 좋다. 또한 국제 규격의 정구장과 테니스장,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실내체육관 등을 갖춘 종합운동장이 있어 산책 외에도 다양한 운동을 병행할 수 있다. 인근에 금광 저수지와 낚시터뿐 아니라 조령천 체육공원, 플로랜드, 옹기 체험장, 자연예술공원, 창작 스튜디오, 아름다운 미술마을로 불리는 두리마을 등 명소가 있어 가족 나들이 겸 산책 코스로 좋다. 인근 안성 남사당 공연장에서는 11월 28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풍물놀이 공연을 비롯해 전통문화 체험교실 등이 열린다. 산책 가기 전 미리 홈페이지(nam-sadangnori. org)를 방문해보자.

산책로 길이 5.8킬로미터 **위치** 경기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복거마을

대중교통 안성 버스터미널에서 죽산 방향 시내버스 37번이나 370번을 타고 종합운동장 입구에 하차해 도보로 5분 거리. 홍익아파트 방향 2-2번 시내버스 이용하면 홍익아파트 입구 하차

삼청·와룡공원 순환산책로

서울의 멋진 경관이 한눈에 쏙



서울 경관이 한눈에 들어와 몸뿐 아니라 눈까지 즐거운 산책코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서울 시내에서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서울성곽, 북촌 한옥마을, 경복궁, 창덕궁, 청와대, 국립민속박물관이 있어 아이들과 나들이 길에 산책을 즐기기 좋다.

산책로 길이 2.27킬로미터 **위치** 서울 종로구 명륜3가동 산 2-14 일대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로 나와 마을버스 11번을 타고 삼청 근린공원 앞 하차. 또는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 마을버스 2번을 타고 남북회담본부 입구나 성균관대 후문 하차.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마을버스 8번을 타고 명륜3가 종점에서 하차

한강 뚝섬지구

한강 보며 마라톤 즐기기에 최적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음악분수광장, 자연학습장, 장미원 등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다. 평탄하고 탁 트여 있어 한강을 바라보며 마라톤을 즐기기에 좋은 코스. 수상스키 및 윈드서핑장이 인근에 위치해 수상 레저를 즐기는 이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곳이다.

산책로 길이 11.5킬로미터 **위치** 서울 광진구 자양3동 704-1번지 일대

대중교통 광진구청 앞에서 2221번 버스 이용해 신흥교통 종점 하차 후 도보 5분

신내공원 & 봉수대공원
산책은 물론 산림욕까지



신내공원 산책로는 녹색 탄성재로 포장돼 오래 걸어도 다리와 눈이 편안하다.
농구장 및 다목적 체육관이 있어 산책과 운동을 즐기기에 좋다. 봉수대공원은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이면 가볼 만한 아담한 크기의 공원. 산책코스 주변으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좋은 잔디밭은 물론 그네 등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있다. 근처 봉화산에 들러 산림욕을 즐기고 오는 것도 좋다.

산책로 길이 3킬로미터 **위치** 서울 중랑구 신내동 652번지
대중교통 지하철 7호선 봉화산역 4번 출구에서 금성초등학교 방향으로 도보 15분

계양산 산림욕장
사계절 꽃과 나무… 뛰어난 경관



계양산 둘레길을 따라가다 보면 탁 트인 산림욕장이 나온다. 산책로 주변에 팔배나무, 산사나무, 때죽나무 등을 심어 사계절 경관이 뛰어난 것이 특징. 코스가 완만해 노약자들도 즐기기에 좋다.
생태교실과 자연생태관찰로 등이 있어 아이들에게 생태공부 하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이다. 매년 봄마다 튤립 꽃 전시장을 운영해 꽃구경 나들이도 가능하다.

산책로 길이 2킬로미터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48번지
대중교통 인천지하철 계산역 하차 지선사 방향으로 도보 10분

북한산 둘레길 순례길 구간
산책하며 역사 공부도 함께



북한산 둘레길 구간 중 총 19만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좋은 산책코스.
주변에 독립유공자 묘역과 국립 4·19 민주묘지와 통일교육원이 있다. 독립유공자 묘소를 지나는 길목마다 독립투사에 관한 안내판이 있어 산책하며 아이들과 함께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다.

산책로 길이 9.6킬로미터
위치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산 127-1번지 일대(통일교육원~솔밭공원)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내려 1번 출구에서 1번 마을버스 이용해 종점 하차 후 도보 1분 거리

강동그린웨이(일자산)
완만한 등산로, 각종 여가시설 구비



국제시민스포츠연맹이 '아름답고 걷기 좋은 길'로 인증한 산책코스. 등산로가 완만해 일반인뿐 아니라 노약자도 산책을 즐기기에 적합하다. 생태탐방, 캠핑, 피크닉, 허브체험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간별 명소가 조성돼 있다. 배드민턴과 헬스, 탁구를 즐길 수 있는 실내체육관과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피크닉장 등이 있다.

산책로 길이 3.5킬로미터 **위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산 140번지 일대
대중교통 지하철 천호역 6번 출구에서 342번 버스 타고 일자산 입구 하차

개운산 순환산책로
다양한 조류 관찰하며 생태관광



도심에 위치한 나지막한 산지형 근린공원. 평탄한 산책로라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기에 좋은 코스다.
개운산에는 쇠박새, 박새, 붉은머리오목눈이 등 조류와 쥐똥나무, 하수오 등의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관광을 즐기기에도 적합하다.

산책로 길이 3.4킬로미터
위치 서울 성북구 돈암동 산 6-1번지 일대(개운산)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6번 출구나 6호선 고려대역 2번 출구로 나와 성북 20번 마을버스를 타고 개운중학교 하차. 시내버스는 103, 108번 타고 미아리고개 하차

송파나루 근린공원
호수 따라 탁 트인 조망이 일품



석촌호수 주변을 따라 마련된 산책로. 중심을 기준으로 놀이공원과 시설이 있는 서호와 산책과 운동 위주로 조성된 동호로 나뉜다.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서울놀이 마당공연장이 나오는데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산책로 길이 하단길 2.6킬로미터, 상단길 1킬로미터
위치 서울 송파구 잠실동 47번지 외 1필지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잠실역 2,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8호선 송파구청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글 · 우매화 객원기자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 031-481-1331

서울역에서 비행기 탑승 수속·수하물 탁송

12월 29일 인천공항철도 서울역~인천국제공항 구간 개통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는 비행기 탑승 수속과 수하물 탁송이 가능해진다. 12월 29일 인천공항철도 서울역~인천국제공항 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해외여행길이 한층 빠르고 편리해지는 것.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 인천공항까지 40~50분대에 이동할 수 있고, 요금도 5천3백원(일반 열차 기준)으로 리무진 버스보다 저렴하다.

더욱이 공항철도 전 구간 개통과 함께 서울역에 도심공항터미널이 문을 열어 공항까지 무거운 짐을 들거나 끌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탑승 수속 및 수하물 탁송을 서울역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승객이 탁송한 수하물은 직통열차로 인천국제공항역으로 옮겨진 다음 해당 항공기에 안전하게 실린다.

국토해양부와 코레일공항철도는 11월 3일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의 수하물 처리 시스템 시연과 함께 서울역~인천공항 58킬로미터 전 구간에 대한 시승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역에서 비행기에 실을 짐을 부치고, 짐에 대한 보안 검색이 실시되는 과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코레일공항철도 김순근 홍보부장은 "기존 도심공항터미널과 마찬가지로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출국 심사까지 마칠 수 있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보안 검색만 거치면 된다는 설명에 시민들이 호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코레일공항철도

11월 3일 코레일공항철도 직원들이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인천공항으로 짐을 보내는 수하물 처리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서울역~인천공항 직통열차 30분으로 운행 간격 줄어

인천공항철도 완전 개통은 2001년 4월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이다. 공항철도 1단계 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37.6킬로미터) 구간은 2007년 3월 개통돼 운행 중이며, 2단계 서울역~김포공항(20.4킬로미터) 구간은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12월 29일 2단계 구간이 개통하면 서울역(1, 4호선 환승), 홍대입구역(2호선 환승), 디지털미디어시티역(6호선, 경의선 환승)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공항철도 공덕역(5, 6호선 환승)이 내년 11월 말 완공되면 공항철도는 1단계 구간 6개역을 포함해 총 10개역이 운영된다.

이 중 6개역에서 서울지하철과 인천도시철도 환승이 가능하고, 서울역에서는 KTX를 이용할 수 있어 서울과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공항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에 맞춰 서울역~검암 구간을 오가는 일반 열차는 12분에서 6분으로, 서울역~인천공항 간 직통열차는 1시간에서 30분으로 운행 간격이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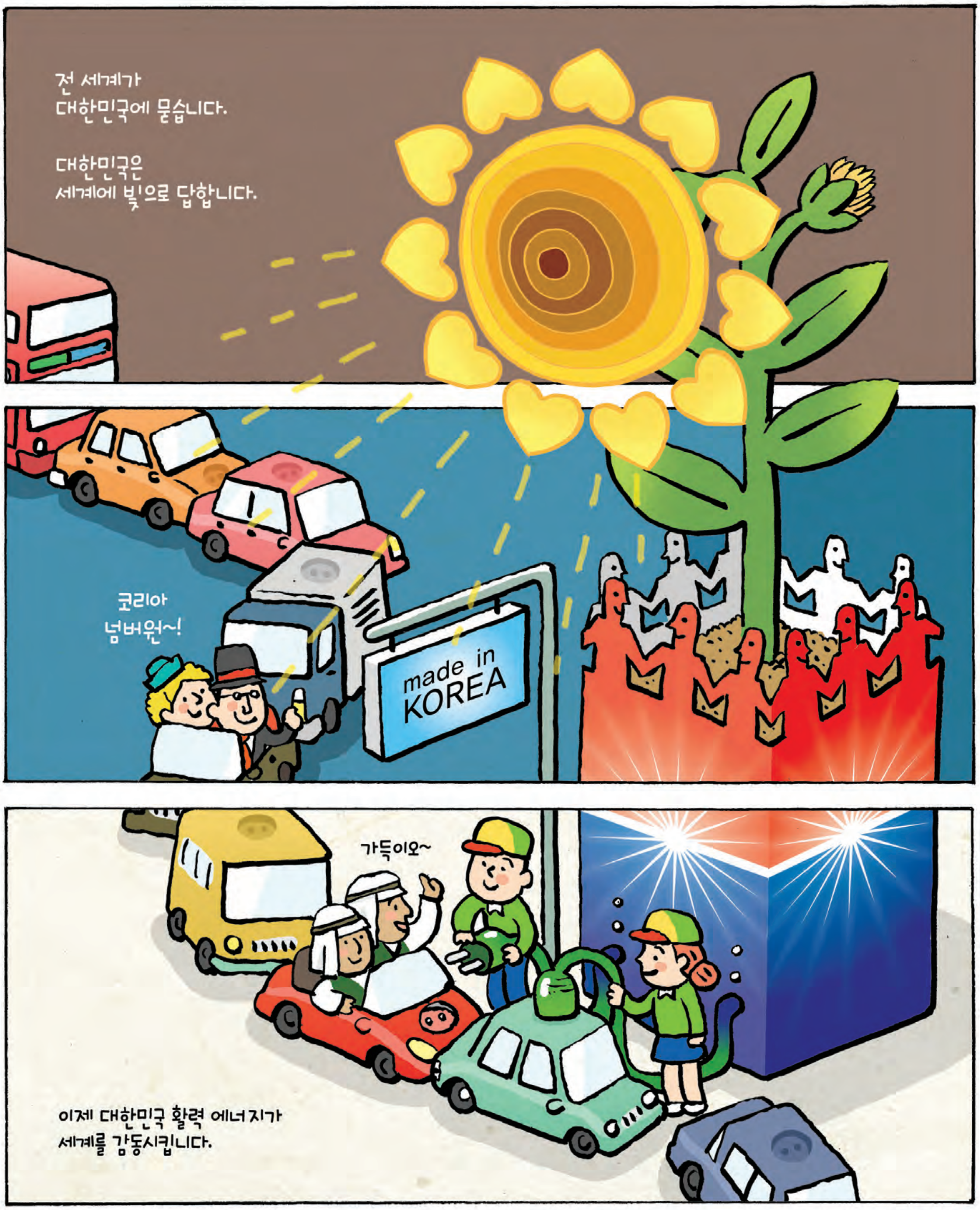
국토해양부는 이와 함께 서울지하철 및 인천도시철도로 환승 시 요금 할인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이 적용될 경우 서울역~검암 간 운임은 현재 3천원에서 1천4백원으로 크게 인하되고, 지하철이나 버스로 갈아탈 때도 기본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G

글 · 구미화 객원기자

코레일공항철도 영업계획팀 ☎ 032-745-7226, 7235 www.arex.or.kr

코리아 프리미엄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I'm from KOREA! 어깨를 당당히 펴십시오!

가치 있게 살고 계십니까?





일러스트 · 이우정

〈가치 있게 나이 드는 법〉 전혜성 지음 / 중앙북스 펴냄 · 1만2천원

누구나 나이 들고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한다. 하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다. 정말 안타까워해야 할 것은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삶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가치의 사전적 의미는 '쓸모'와 '보람'이다. 사람들은 보통 쓸모가 더 맞는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혜성(81) 동암문화연구소 이사장은 보람이 더 좋은 의미라고 말한다. 물건이 오래되면 쓸모가 없어지지만 대신 그 물건을 통해 얻은 보람이 커지면 그 가치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전 이사장은 삶의 가치도 그런 것이라고 말한다. 나이를 먹으면 젊었을 때보다 쓸모가 적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이 들면서 찾는 보람이 커진다면 가치 있는 삶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치 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보람의 크기를 높이는 것과 같다.

그는 대표적인 파워 시니어다. 그는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공부와 연구, 봉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이면서 6남매를 해외 명문대학에 보내고 아들 고경주, 홍주 박사를 미국 오바마 행정부 차관보로 키워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런 그가 은퇴 후의 막연한 삶,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풀기 위해 〈가치 있게 나이 드는 법〉을 펴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곤 한다. 50, 60대가 되면 누구나 자녀가 결혼하는 순간 지금껏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허탈감을 맛보게 되고, 젊은 시절 열심히 노력해 들어간 회사에서는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혹은 회사를 떠난 후엔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오기도 한다.

인생에서 마주치는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잃고 좌절과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때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가치 있는 삶이란 나와 같은 이상을 추구해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다.

저자는 가치 있는 삶은 자신이 모은 돈보다 부유하고, 높은 지위보다 명예로운 삶이라고 정의했다.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노년 이야기와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 저자는 '인생은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얻으라고 조언한다. G

글 · 박병주(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감사의 마음

글과 그림 · 최영순



감사하는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니다 보면 늘 감사에 가득찬 어질고 부드러운 눈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 이해인 수녀

Culture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슬프고도 아름다운 엄마 이야기

연극 〈엄마를 부탁해〉 두 번째 무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은 12월 31일까지 연극 〈엄마를 부탁해〉를 상연한다. 엄마의 실종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딸, 아들, 남편의 기억을 통해 무심코 지나쳐버린 엄마의 인생과 사랑을 추리소설 기법으로 하나씩 복원해가며 가족들의 내면을 그린다. 작품 곳곳에서 만나는 엄마에 대한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의 엄마를 떠올리게 하며 관객들의 공감을 자아낸다.

이번 공연은 올해 1월 관객 앞에 첫선을 보이며 객석 점유율 90퍼센트라는 대기록을 세운 화제작의 두 번째 무대로, 한국 연극을 대표하는 연출가 심재찬이 맡아 손숙, 박웅, 허수경, 김여진 등 새로운 배우들과 호흡을 맞췄다.

특히 이번 무대로 연극무대 데뷔를 마친 허수경은 "절망적 상황에서 나를 살게 하는 그리고 살게 했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인 어머니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다"며 "보이지 않는 내 안의 경험들을 통해 무대 위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9년 문화계에 '엄마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신경숙 작가의 원작과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이 함께하는 연극 〈엄마를 부탁해〉는 지금 이 사회가 가져야 할 진정한 모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감동을 선사한다. G 글 · 이윤진 기자

일시 12월 31일까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관람료**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1544-1555(인터파크) www.theateryong.or.kr

● 공연 〈2010 호세 카레라스 내한 콘서트〉

'영혼의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는 세계적인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내한공연.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와 칸초네 등을 부를 예정이다.

일시 11월 19일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VIP석 25만원, R석 20만원, S석 15만원, A석 10만원, B석 5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41-2512~3 www.sac.or.kr

●● 연극 〈이 爾〉

영화 〈왕의 남자〉로 잘 알려진 연극으로, 마당놀이로 풀어내는 궁중 광대들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신명나는 웃음을 전한다. 김뢰하, 정태우 등이 출연한다.

일시 11월 4일~12월 5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M 시어터
관람료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1588-5212 www.openreview.co.kr

●


●●


G20 SEOUL SUMMIT 2010

위기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서울 G20 정상회의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준공 이전!

2010년 11월,

대한민국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업무를 시작합니다!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보건복지부
OHTAC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KFDA NIFDS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NIH 국립보건연구원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컬링은 19.96kg의 스톤을 하우스라는 원에 정확히 밀어 넣는 경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컬링의 스톤은 19.96kg이 아니라 장애인을 보는 세상의 시선과
전용 경기장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의 무게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 휠체어컬링 은메달, 이들이 움직인 스톤에
세상 사람들이 더 감동하고 더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는 장애인들이 하는 운동경기가 아니라 스포츠의 진정성과 가치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인간승리의 드라마**입니다.

12월 12일 개막하는 제10회 광저우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300명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KOSAD 대한장애인체육회 Korea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